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8 02  
vol.314

표지

'별을 산 날' - with 어쿠스틱카페

© 이노우에 나오히사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투란도트, 수수께끼 맞추고 공주와 결혼하기

유럽 박물관 기행

예수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곳, 성 베드로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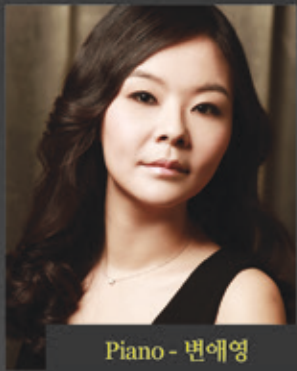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 Aimez-vous Brah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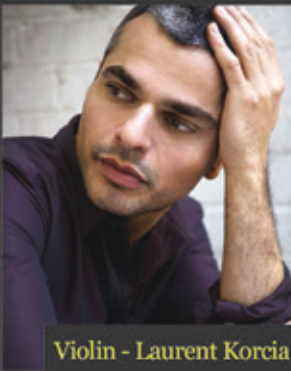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Violin - 피호영



Piano - 변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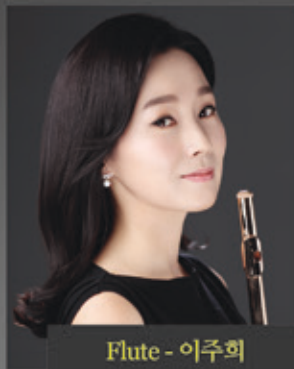
Violin - Laurent Korcia



Flute - 이소영



Flute - Philippe Bernold



Flute - 이주희



Cello - 최주연



Cello - Arto Noras



Piano - 김가람

2018.  
2.25(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및 예매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인터파크 티켓  
ticket.interpark.com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ccc.or.kr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





2 0 1 8 금 정 문 화 회 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 ‘안아서 세계 속으로’

김재열 세계여행 스토리텔러의 행복한 세계여행 콘서트

오전 11시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2월 27일 (화) 칸타레와 아모레의 나라 '이탈리아 음악여행'
- 4월 24일 (화) 정열과 축제의 나라 '스페인 음악여행'
- 6월 26일 (화) 장밋빛 인생 '프랑스 음악여행'
- 8월 28일 (화) 크리에이티브 '영국 음악여행'
- 10월 30일 (화) 군복을 입은 클래식 '독일 음악여행'
- 12월 18일 (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음악여행'

입 장 권 : 전석 1만5천원 (커피 제공) 공연시간 : 약 70분 \*예매는 1일 전 오후 5시까지, 공연 당일 잔여좌석에 한해 1시간 전부터 현장구매 가능  
할 인 : 10% 금정구민(본인적용) / 20% 정기회원(본인적용), 단체 20인 이상 / 30% 브런치콘서트 6개 공연 동시구매시 패키지할인 / 50% 국가유공자, 장애우동반 1인 포함

입장연령 : 만 7세 이상 예매 : 금정문화회관 인터파크 주최 : 금정문화회관 문의 : 051) 519-5661,3



#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그  
슈베르트의 서거 190년 기념  
슈베르트

4개의 즉흥곡 D.935  
피아노소나타 No.21 D.960

2018. 3. 13 TUE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협찬 | 강동병원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단체예매 및 공연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티켓 |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10%, 학생(초,중,고,대학생)20% (학생증 미지참시 차액지불)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녹음홀 글로벌아트홀 개최

# 제25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쿨

**대 회 일** 2018.3.31(토) 현악.관악.실내악  
2018.4.14(토) 피아노.성악.작곡

**장 소** 글로벌아트홀

**대 상** 유/초/중/고/대/일반전공/일반비전공

**접 수 처** 콘테스트 (<http://contest.co.kr>)

**과 제 곡** 전 부문 자유곡 1곡 (작곡은 홈페이지 참조)

**참 가 비** 개인 10만원(유초등부 8만원) / 중창 및 실내악 1인당 5만원  
국민은행 99776600054 글로벌아트홀 (참가자이름으로 입금, 참가비는 접수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시 상** 전체대상 (부산광역시장상) / 특별상 (동래구청장상) / 부문별최우수상  
금상.은상.동상/장려상 (각 부문별 학년별 절대평가로 채점)



**전체대상** 부산광역시장상 상금200만원 (본인 100만원 / 지도자 100만원)  
개인연주회 개최 (100만원 상당) 무상제공, 최우수입상자 축하음악회에서 선발

**최우수상** 최우수입상자 축하음악회, 고음질,고화질 full HD 녹화(유학 및 국제콩쿨 오디션용으로 활용)  
고음질녹음 디지털앨범 발매(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가능)  
글로벌아트홀 대관 (30%) 할인권 제공

**금상 / 은상** 신예음악회 (신청서 제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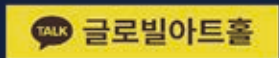
**동상 / 장려상** 상장수여, 글로벌예술단 오디션 면제

**교육공로상** 최우수상을 배출한 지도자에게 상장 수여

**우수지도상** 5명 이상의 입상자를 배출한 지도자에게 상패 또는 우수 지도비 지급  
교육공로상, 우수지도자가 글로벌아트홀 대관 시 50%대관 할인권

주최 GloVil Art Hall 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협찬 seagullcoms / 조셉앤스테이시

문의 글로벌아트홀 051-505-5995 홈페이지 [www.glovil.org](http://www.glovil.org) 이메일 [glovil.daum.net](mailto:glovil.daum.net)  
47849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온천3동)





**SPECIAL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지브리OST 오리지널그룹 내한공연 '별을 산 날' - with 어쿠스틱카페



08

© 이노우에 나오히사



18

**CULTURE +**

유럽 박물관 기행

2000년 전 예수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곳,  
성 베드로 성당



38

**VIEW +**

리뷰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II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52

**NEWS +**

부산문화회관 소식



---

# contents

---

## SPECIAL +

- 08 커버스토리  
지브리OST 오리지널그룹 내한공연 '별을 산 날' - with 어쿠스틱카페
- 

## CULTURE +

- 10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2월 공연 캘린더
- 14 반갑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초대회장 최수기
- 16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투란도트, 수수께끼 맞추고 공주와 결혼하기
- 18 유럽 박물관 기행  
2000년 전 예수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곳, 성 베드로 성당
- 22 그곳에 가면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신개념 문화공장 '복합문화공간 F1963'
- 24 테마가 있는 여행  
찬란한 가야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고장 고령
- 

## VIEW +

- 32 프리뷰
- 38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 

## NEWS +

- 50 새로 나온 음반 / 새로 나온 책
- 52 부산문화회관 소식
-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가의 초대

---

2018년 2월호 통권 314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8년 1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지브리OST**  
 오리지널그룹 내한공연  
 ‘별을 산 날’ - with 어쿠스틱카페

음악감독 \_ 츠루 노리히로 원화작가 \_ 이노우에 나오히사  
 연주 \_ 츠루 노리히로(바이올린), 아야코(첼로), 시호 데라다(피아노, 객원)  
 세키 준지로(기타), 토모노리 오이시(퍼쿠션)  
 제작 \_ (주)실버트레인

© 이노우에 나오히사



© 이노우에 나오히사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1일 일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30-5200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별을 산 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을 라이브로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별을 산 날' OST를 작곡한 바이올리니스트 츠루 노리히로와 그가 리더로 있는 연주그룹 '어쿠스틱카페'가 연주를 맡아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에서만 상영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별을 산 날'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오랜 파트너이자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인 이노우에 나오히사의 원작 삽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가장 아끼는 단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매력적인 스토리와 영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파스텔을 중심으로 한 환상적인 화풍이 특징인 이노우에 나오히사의 작품은 한 번 보면 결코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인상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노우에 나오히사는 미야자키 하야오로부터 '거대하고 환상적인 풍경, 뛰어난 발상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의 작품세계에 많은 영감을 주면서 '별을 산 날' 외에도 '귀를 기울이면' 등 여러 작품을 함께 했으며, '이바라드 시간'은 직접 감독을 맡기도 했다.

'별을 산 날'은 특히 '어쿠스틱카페' 리더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뉴에이지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 츠루 노리히로가 음악감독을 맡아 작품을 더욱 신비롭고 인상 깊게 한다. 1989년 '달을 만든 남자'로 데뷔한 후 30편 이상의 다큐멘터리 음악을 작곡해온 츠루 노리히로는 그동안 TV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으며 음반 프로듀서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가 리더로 있는 연주그룹 어쿠스틱카페(Acoustic Cafe)는 츠루 노리히로를 중심으로 첼리스트 아야코와 객원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앙상블로, 이름 그대로 어쿠스틱 악기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연주로 관객들을 매료시켜 왔다. 특히 츠루 노리히로가 작곡한 '라스트 카니발(Last Carnival)'로 국내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어쿠스틱카페는 2009년 첫 내한공연 이후 여러차례 한국을 찾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애니메이션 '별을 산 날'의 원작 삽화를 영상으로 직접 보며 장면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어쿠스틱카페의 라이브 연주로 즐길 수 있어 스튜디오 지브리의 영상미학과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영상자막을 통해 애니메이션 속 이야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무대는 특히 노나의 별, 두 개의 달이 뜬 날~바람 부는 날, 진실의 눈물, 거기부터, 이바라드의 자장가, 상승기류(날아 오르는 날) 등 '별을 산 날' OST 전곡이 세계 최초로 연주된다. 또, 국내 미개봉작인 이노우에 나오히사가 감독한 애니메이션 '이바라드 시간' 중 '구름이 가까운 가게', '환상의 물고기', '수중정원' 등 3개의 에피소드가 상영된다. 그의 작품 속 세계를 총칭하는 '이바라드'는 비현실적인 풍경들이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묘하게 향수를 자극하는 몽환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세계로, 스튜디오 지브리와 함께 작업한 이 애니메이션 속에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츠루 노리히로는 이번 무대를 위해 새롭게 작, 편곡한 연주곡으로 이바라드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이밖에도 Moonlight Dancer, 출항, 오월의 바람, 태고의 태양, Pray 등 츠루 노리히로의 대표작들과 어쿠스틱카페 스타일로 편곡한 '지브리 OST'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노우에 나오히사(좌), 미야자키 하야오(우)



츠루 노리히로



## PROGRAM

### 1부 '별을 산 날'

노나의 별 Nona's Star  
 두 개의 달이 뜬 날~바람 부는 날 Double Moon Day~The Windy Day  
 진실의 눈물 Tera's Truth  
 거기부터 From there  
 이바라드의 자장가 Iblard Lullaby  
 상승기류(날아 오르는 날) Updraft(Flight Day)  
 영화 '별을 산 날' OST 메들리 The Day I Bought a Star

### 2부 '이바라드 시간'

Moonlight Dancer(앨범 '달을 만든 남자' 수록곡)  
 출항(앨범 '태고의 태양' 수록곡)  
 오월의 바람  
 태고의 태양(앨범 '태고의 태양' 수록곡)  
 구름이 가까운 가게 with 이바라드 시간  
 환상의 물고기 with 이바라드 시간  
 수중정원 with 이바라드 시간  
 Pray(앨범 '라스트 카니발' 수록곡)


\* 본 레퍼토리는 프로그램 진행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2

2018 FEB

부산문화회관  
공연일정

SUN	MON	TUE
4	5	6
11	12	13
18	19	20
25	26	27
<p><b>대</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7:00 5만원·3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중</b> 2018 마린뮤즈콰이어 정기연주회 18:30 마린뮤즈콰이어(628-5906)</p>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캠** 챔버홀 **야**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WED	THU	FRI	SAT
	1	2	3
	<p><b>중</b> 제26회 재부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 연주회 19:30 초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재부 어머니회 (010-9669-5449, 010-4666-6996)</p>	<p><b>중</b>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 부산광역시 남구청(607-4064)</p>	<p><b>중</b> 비바체임버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Romance' 19:00 무료 비바체임버오케스트라(010-8510-4654)</p>
7	8	9	10
	<p><b>대</b> <b>◆</b>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7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III '천재의 고뇌와 모방'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b>중</b>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기원 부산시립-강원도립극단 교류공연 '메밀꽃 필 무렵' 19:30 무료(인! 4매, 전화예매) 부산시립극단(607-3125)</p>		
14	15	16	17
21	22	23	24
	<p><b>대</b> 제1200회 MBC목요음악회 '다원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음악회' 19:30 1만원·5천원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p> <p><b>참</b>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생 연주회 19:30 여채린(010-5525-8748)</p>		<p><b>대</b> <b>◆</b>(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럽신인 오페라 갈라콘서트' 17:00 3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중</b>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과천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ly Concert' 15:00 전석 2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p>
28			
<p><b>중</b> 영화 속 클래식 시리즈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_고흐 VS 고갱' 19:30 3만원·2만원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02-766-7623)</p>		<p><b>전시실</b>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1월 1일(월)-4월 8일(일)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70-7542-8531, www.seelife.co.kr</p>	<p>입장료 : 성인(만19세-64세) 1만 3천원 청소년(중·고교생) 1만 1천원 어린이(48개월-초등학생) 9천원 45개월 미만 무료(증빙서류 지참)</p>



# 02

2018 FEB

부산시민회관  
공연일정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SUN	MON	TUE
4	5	6
11	12	13
<p><b>대</b>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지브리OST 오리지널그룹 내한공연 '별을 산 날'_with 어쿠스틱카페 15:00 6만원·4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소</b> 어린이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1:00, 14:00 전석 2만 5천원 동그라미그리기(805-5355)</p>		
18	19	20
25	26	27
	<p><b>소</b>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10:00 무료 (사)한국교육선진화재단(201-0221)</p>	<p><b>소</b>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10:00 무료 (사)한국교육선진화재단(201-0221)</p>



WED	THU	FRI	SAT
	1	2	3 <b>대</b> 2018 김광석 다시부르기 15:00, 19:30 9만 9천원·7만 7천원 (주)예술기획 성우(1599-1980)
7 <b>스</b> 창작뮤지컬 '파랑새특공대' 10:15, 11:20 전석 1만원(단체 예매 시 5천원) 극단 남비콤비(02-882-9001)	8	9	10 <b>대</b>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지브리OST 오리지널그룹 내한공연 '별을 산 날'_with 어쿠스틱카페 15:00, 19:30 6만원·4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b>스</b> 어린이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1:00, 14:00, 16:00 전석 2만 5천원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14	15	16	17
21	22	23	24
28 <b>스</b> 부산시민회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 상영회 '나, 다니엘 블레이크' 14:00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b>전시실</b> <b>제75회 부산일요화가회 회원전</b> 2월 5일(월)~2월 10일(토) 1, 2층 전시실 문의 : 설광룡 010-3858-7709 <b>백송 천연염색전</b> 2월 20일(화)~2월 25일(일) 1층 전시실 문의 : 백송 010-7639-0816	<b>박수진 개인전</b> 2월 21일(수)~2월 25일(일) 2층 전시실 문의 : 박수진 010-8916-8466 <b>사람도 풍경이다</b> 2월 26일(월)~3월 3일(토) 1층 전시실 문의 : Photopia 010-9002-8408



보람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초대회장 **최수기**





'보람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을 캐치프레이즈로 (재)부산문화회관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가 지난 1월 16일 해운대 조선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발족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후원회를 이끌었던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재)부산문화회관 박인건 대표이사를 비롯해 후원회 변원탄 부회장, 윤영기 사무처장 등 후원회원들의 도움으로 후원회가 무사히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만큼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 문화의 발전을 위해 후원회를 열심히 이끌겠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지역 인사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지난해 6월 30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후원회에는 최수기 회장을 비롯해 변원탄(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백송건설 회장), 도용복(사라토가 회장), 김정기(경동건설 대표), 강남주(전 부경대학교 총장), 곽국민(파크랜드 대표이사), 박성환(대동병원 이사장), 임정덕(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천영스틸 대표이사), 정의화(전 국회의장) 등 51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창립 총회를 열기까지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은 총 1억원으로, 이 후원금은 창립 총회 당일 (재)부산문화회관 박인건 대표이사에게 전달됐다.

“지난 1997년 발족된 서울 예술의전당 후원회는 출범 당시 회원 수가 40여 명에 불과했어요. 지난 한 해 준비위원장을 맡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과 부산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수기 회장은 40여 명에서 출발해 지금은 250명을 훌쩍 넘긴 예술의전당 후원회처럼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도 앞으로 회원 수를 적극적으로 늘여나가면서 후원회를 통한 기부와 참여를 통해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 지원은 물론 신진예술가나 어려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 첫 활동으로 후원회에서는 오는 3월, (재)부산문화회관, 16개구·군 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쉽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장애우를 위한 특

별한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후원회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원회원들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최수기 회장은 후원회 캐치프레이즈처럼 회원들이 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명예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회원들 간의 교류와 만남의 장을 위해 매년 4월과 9월, 12월 등 세차례 ‘후원인의 밤’을 개최하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 회원 명단을 게시하는 한편, 극장 좌석에도 회원 이름을 네이밍하는 등 후원회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컨택센터 운영 및 운영대행업체인 부일정보링크(주) 대표로 있는 최수기 회장은 본격적인 컨택센터 산업을 부산에 처음 소개한 기업인으로, 현재 한국컨택산업협회 회장으로 있다. 4천여 명이 넘는 직원들의 문화복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화예술과 더욱 친숙해졌다는 그는 민간 중심의 지역공동체 운동 기구인 세계시민사회센터 이사장, 해운대문화원 원장을 맡으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평소에도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공연장을 즐겨 찾는다는 최수기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도 특히 좋아하는 뮤지컬 관람을 위해서는 서울, 대구 등 원정 관람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관람한 공연 중에서는 지난해 12월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부산시립교향악단 2017년 송년음악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최수기 회장은 매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송년음악회만큼은 빼먹지 않고 관람한다고 한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지역의 공연문화를 이끄는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 저희 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는 생각으로 창립 원년을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최수기 회장. 문화예술을 통한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투란도트,  
수수께끼 맞추고  
공주와 결혼하기

투란도트, 리베르티니, 리베르티니



2006년, 30대 초반이었던 나는 국립오페라단이 제작한 푸치니의 걸작 중의 걸작이며 불멸의 최후 미완성 작품인 '투란도트'로, 당시 이탈리아 연출가 올리세 산티키(Ulisse Santicchi)의 리바이벌 연출가로서 전국을 순회하게 되었다. 푸치니의 이 작품은 음악적 완성도는 물론이고 극 자체의 드라마틱하고 임팩트한 구성으로 가는 곳마다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최근에는 누구나 다 아는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로 감동의 전율을 전하면서 '언젠가는 꼭 이 작품을 하고야 말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2009년 인천대교의 개통을 기념해,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 주역 가수이자 전설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게나 디미트로바(Ghena Dimitrova)의 대를 잇는 불가리아 최고의 투란도트 마리아나 즈베타코바(Mariana Zvetkova)와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의 지휘자 빅토르 쿨리코프(Victor Kulikov)를 초청하는 프로젝트에 연출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들 외에도 갈라프 왕자역에 테너 신동원, 한윤석, 류역에는 오미선, 마르게리타 알라베르디안(Margarita Alaverdian) 등 최고의 성악가와 함께 하면서 나의 희망을 이루게 되었다.

이 작품은 1926년 4월 25일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서 토스카니니의 초연으로, 서곡이 없는 푸치니 오페라 스타일대로 1막이 바로 시작되었다. 전설시대 중국 북경 성벽 앞 광장. 관리가 '북경의 백성들이여, 황제의 딸은 자신이 내놓은 세 가지 수수께끼를 맞추는 왕자 혈통의 구혼자와 결혼할 것이다. 그러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자는 참수형에 처한다. 페르시아 왕자가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달이 떠오르면 그의 목은 망나니의 칼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외친다. 이와중에 타타르 왕국에서 축출되어 유랑생활을 하던 티무르와 그의 아들이 우연한 재회를 한다. 그 둘은 기뻐하고 왕자는 망명생활 중 자신을 돌봐준 여자노예 류(예전부터 왕자를 연모하던)를 티무르에게 소개한다. 달이 떠오르고 밤이 깊어지자 페르시아 왕자의 행렬이 자비를 애원하지만 궁궐 망루에 나타난 투란도트 공주는 얼음같이 차가운 표정을 보일 뿐이다. 이때 멀리서 투란도트를 지켜보던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만다. '너무 멀어서 예뻐 보인 걸까?' 하는 나의 엉뚱한 분석을 뒤로 한 채 광장에는 왕자, 티무르, 류만 남는다. 그는 투란도트에게 반했고,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수수께끼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며 궁궐을 향해 뛰어가는데 갑자기 가면을 쓴 세 명의 중국 관리 핑, 팡, 풍이 나타나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몸짓으로 그를 가로막으며 '멈춰라! 아무리 아름다운 공주라도 얼굴 하나에 가슴 둘, 손발 두 개씩 있는 보통 여자일 뿐, 목숨이 아까우면 빨리 돌아가라'고 무모함을 조롱한다. 왕자가 '승리는 나의 것, 투란도트는 나의 사랑'이라며 요지부동 뜻을 굽히지 않자 티무르는 비탄에 빠지고, 옆에 있던 류가 왕자에게 다가가 흐느끼며 아리아 '들어보세요, 왕자님(Signore Ascolta)'을 노래한다. 그러나 류의 애원에도 그는 아리아 '울지마라, 류(Non piangere Liu)'를

부르며 아버지 티무르를 부탁한다는 말만을 남긴 채 도전을 감행하고자 한다. 왕자, 티무르, 류, 핑, 팡, 풍의 6중창 콘체르탄테에서 발전하여 합창과 장대한 피날레가 펼쳐지는 가운데 결국 왕자는 징을 세 번 울려 공주에게 도전을 선언하는 가운데 막이 내린다. '투란도트'는 각 막마다 아주 아주 강한 음악으로 종결을 짓는 것이 특징이다.

2막 1장, 북경의 누각에 핑, 팡, 풍이 모여 지금까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 사형당한 왕자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이 왕자는 호랑이 해인 올해만 13번째 도전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언젠가 투란도트 공주가 사랑에 눈을 떠 중국에 다시 한 번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며 2장으로 넘어간다. 여기에서 음악의 단절이 아닌 연결을 통해 북경 광장으로 변화하는 전환의 묘미가 연출의 능력에 달려 있다. 황제 알툼이 먼저 나와 도전자 왕자를 만류하며 목숨을 아깝게 여기라고 말하지만 왕자는 자신만만하다. 이윽고 공주가 등장해 아리아 '옛날 이 왕궁에서(In questa Reggia)'를 부른다. 오랜 옛날, 궁궐에 쳐들어온 외국군대가 로우링 공주를 능욕하고 죽인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 공주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외국에서 온 젊은이에게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어 복수해 왔으며, 아무도 자신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도도하고 위협적인 자세로 아리아의 클라이맥스 '이방인이여, 수수께끼는 세 개, 죽음은 하나(Gli enigmi sono tre, la morte è una!)'라고 말하자 이를 되받아 왕자가 '수수께끼는 세 개, 생명은 하나(Gli enigmi sono tre, una è la vita!)'라고 외친다. 나팔이 울리면서 게임이 시작된다. 특히 여기서 왕자가 투란도트의 아리아에 같이 2중창으로, 하이 C 고음을 동시에 내는 장면은 가히 압권이다. 세계의 수수께끼에 대해 왕자가 각 문제에 대한 답으로 희망과 피, 투란도트로 풀어내자 공주는 매우 당황해하며 '나를 그렇게 모욕적인 눈으로 쳐다보지 마라. 절대로 나는 네 소유가 되진 않는다'고 외치지만 황제는 맹세한 신성한 것이라 말하고, 군중들도 이에 가세한다. 이때 왕자가 역으로 수수께끼를 낸다. '새벽녘까지 내 이름을 알아내보시오. 알아낸다면 그대의 승리, 그대가 원한다면 내가 죽으리다'라고... 황제의 '내일 아침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덕담과 함께 황제를 찬양하는 거대한 음악 아래 2막이 내린다.

그 유명한 3막, 왕궁의 정원. 저 멀리서 '왕자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아무도 잠들어선 안된다'는 공주의 명령을 전하는 관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왕자가 일어서서 사랑의 승리를 확신하는 아

리아 '아무도 잠들지 못한다(Nessun Dorma)'를 노래한다. 이때 갑자기 핑, 팡, 풍과 백성들이 달려나오며 당신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게 되니 제발 북경을 떠나달라고 애원과 협박을 되풀이한다. 이때 위병들이 티무르와 류를 끌고 나오는데 백성들은 이들 두 사람이 왕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환호성을 올린다. 이때 투란도트 공주가 등장해 티무르를 고문하려고 하자 류가 왕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자신 뿐이라며 티무르의 앞을 막아선다. 잔혹한 고문에도 왕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투란도트가 류에게 그 이유를 묻자, 류는 아리아 '가슴 속에 숨겨진 이 사랑(Tanto amore, segreto)'을 노래한다. 공주는 초조해하며 류를 죽일 마음을 품고, 죽음을 직감한 류는 '얼음장 같은 공주님의 마음도(Tu, che di gel sei cinta)'라는 최후의 아리아를 마치고 위병의 단검을 뽑아 자결한다. 타이틀롤인 투란도트보다 류에게 3개의 아리아를 더 넣었다는 것은 류에게 푸치니가 얼마나 애착이 갔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특히 류는 원작에는 나오지 않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푸치니는 죄없이 죽어갔던 푸치니 집안의 하녀 도리아 만프레디(Doria Manfredi)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그 지점까지 작곡을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녀의 장례장면이 연출되며 모두 나가고 홀로 남은 왕자와 투란도트, 왕자는 류의 죽음을 힐난하며 거세게 거부하는 투란도트를 억지로 껴안으며 격정적인 키스를 한다. 그 키스의 힘은 공주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사랑을 느끼게 한다. 이에 왕자는 공주에게 자신의 이름이 '칼라프'라고 얘기한다. 오페라 악보 스코어는 이 시점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왕자(Il Principe Ignoto)'에서 그의 이름 'Calaf'로 명기된다. 아침이 밝고, 왕궁에 모든 군중들 앞에서 투란도트는 황제 알툼에게 '이 젊은이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Amor)입니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Nessun Dorma 모티브의 콘체르탄테로 그 둘은 황제의 축복 아래 연을 맺는 장면으로 막이 내린다.

인천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공연의 대성공으로 나는 '아이디'를 비롯 '라 트라비아타', '세빌리아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미술피리' 등 수 많은 작품을 의뢰받게 되었고, 9년이 지난 요즘 다시금 '투란도트'를 연출하고픈 소망을 갖게 되었다.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푸치니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에게 내년 독일극장에서 이 작품을 연출할 기회가 생길 것 같고, 다시금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다. 나의 꿈은 잠들지 않으니까 말이다...



유럽 박물관 기행

글·사진 김성민 (주)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인문학강사

2000년 전  
예수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곳

성 베드로 성당  
*Basilica di san Pietro in Vaticano*







### 저 성당은 어떤 성당인가요?

로마에서 일할 때 여행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이 질문은 로마를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도시에서 수많은 성당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 이 사실은 그만큼 유럽이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교의 문화가 뿌리깊게 박혀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특히 로마는 프랑스의 아비뇽 유수 기간을 마치고 복귀했던 교황의 명령으로 15세기부터 수많은 성당들을 세웠다. 그리고 성당 내부는 당시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들로 채워졌다.(참고로 로마에는 이러한 성당들이 약 500여 개가 넘는다.)

10년간 로마에서 생활했던 필자는 쉬는 날이면 종종 새로운 작품들과 이야기가 있는 로마의 성당을 찾아다녔다.(터구나 대부분 무료입장이다.) 그곳에서 너무나 유명한 작품을 찾아내고 감상하는 것은 힘든 외국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위로였다.

이번 달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티칸 박물관 옆에 위치하고 있는 서방 가톨릭의 중심인 성 베드로 성당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유럽 박물관 기행에 성당이 왜 나오는지 물어본다면 이곳이야말로 전 세계 그 어떤 박물관보다 위대한 작품들이 즐비한 곳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 2000년 전 예수의 예언이 이루어진 곳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장 16절)” 2000년 전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시몬이라는 제자가 대답했던 말이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는 크게 기뻐하며 시몬을 격려했고 그 때부터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반석)라고 바꿔 주었다. 그리고 이 반석(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과 지상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다. 이후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황제에 의해 순교했고(AD 64~67) 그의 무덤 위에 콘스탄티누스 1세(Constantinus I, AD 272~337)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의 요청으로 최초의 작은 베드로 기념 성당이 만들어졌다(AD 327년). 그리고 지금의 성당은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Julius II, 1443~1513)의 명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성당이다. 즉 이곳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건설된 교회이고 예수의 예언이 실현된 장소인 것이다.

또한 베드로가 받은 천국과 지상의 열쇠는 이후 베드로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그림과 건축에서 베드로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성 베드로 성당과 광장의 모습을 공중에서 보면 열쇠 모양을 연상할 수 있다.





1 세상에서 가장 큰 성당 베드로 성당. 내부에는 약 6만 명이 앉아서 미사를 드릴 수 있다.



2 성당 내부의 벽화처럼 보이는 작품들은 모두 천연대리석 모자이크이다.



3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 세상에서 가장 큰 성당

1506년부터 건축된 성 베드로 성당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당이 완성되고 이미 400여 년이 흘렀지만 교황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성당보다 더 큰 성당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마도 무리한 성당 건축으로 인해 16세기 독일지역에 불법적인(면죄부라고 알려진) 면벌부가 집중 발매되었고 그 반동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인해 하나의 교회가 여러 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성당 내부에 입장하면 과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성당 내부 면적은 25,616평방미터이고 건축물의 둘레는 1,778미터이다. 또한 44개의 제단과 11개의 돔, 778개의 기둥(높이가 무려 12미터이다), 395개의 동상, 135점의 모자이크 그림이 있고 중앙 홀은 약 187미터, 가로 홀은 140미터이다. 중앙 홀의 평균적인 높이는 46미터이고 돔의 내부 높이는 137미터이다. 성당 중앙 바닥에는 전 세계의 성당 길이가 새겨져 있는데, 성당 가장 끝에는 베드로 성당의 길이도 확인할 수 있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성당을 입장하면 바로 오른쪽에 수많은 여행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단단한 방탄유리로 보호받고 있는 하얀 대리석의 이





4

성 베드로 성당 꼭대기에서 바라본 모습

작품은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이다. '피에타(Pieta)'는 '비탄, 자비'라는 뜻으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 예수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담은 예술작품을 뜻하며 그림이나 조각으로 많이 나타난다.

프랑스 출신 추기경의 의뢰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1499년 미켈란젤로가 24세 때 완성했던 작품이고 이 작품으로 인해 미켈란젤로는 천재라는 칭호를 받기 시작한다. 재미있는 일화는 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미켈란젤로는 고향 피렌체로 돌아가지 않고 한동안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로마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고 한다(당시 신인이었던 20대의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구경꾼처럼 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훑쳐듣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 천재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에타의 제작자 미켈란젤로를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 밀라노 출신의 다른 조각가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자 미켈란젤로는 크게 실망했고 결국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밤에 자신의 작품이 있었던 성 베드로 성당에 몰래 침입해 누가 볼까 두려워하면서 빠르게 자신의 서명을 다시 새겨 넣었다고 한다. 미켈란젤로의 자서전을 보면 이 사건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서명을 남기고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문득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이 아름다운 대 자연을 만드신 조물주께서는 그 어떤 곳에도 서명을 남기지 않았는데 나는 고작 작은 작품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서명을 남겼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했다고 한다. 미켈란젤로는 당시 89세까지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조각을 했는데 피에타를 완성하고 이후 65년 동안 자신의 조각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 작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모 마리아의 얼굴 부분일 것이다. 당연한 이치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를 표현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성모 마리아는 묵묵하게 죽은 아들을 바라만 보고 있다. 어떤 이들은 미켈란젤로는 6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아들이 고통 끝에 해야 할 일을 이루고 죽음으로 평안을 얻었기에 인간적인 이별의 슬픔보다는 깊은 신앙심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고귀한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식을 끝까지 믿어 주고 이해해주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다. 결국 모든 인류의 어머니를 표현한 미켈란젤로의 성모 마리아는 그래서 오늘도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신개념 문화공장

복합문화공간

F1963

22

부산 도심의 버려졌던 폐공장이 부산 문화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망미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F1963이 그 주인공. 최근 공연·전시공간인 석천홀이 개관하면서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섰다.

F1963은 특수 선재 제조업체인 고려제강(Kiswire)이 지난 45년간 와이어로프(쇠줄)를 생산해오던 공장으로서, 2008년 6월 생산시설을 양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방치해오다 2016년 부산시와의 민관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재생 건축에 대해 남다른 철학을 지닌 건축가 조병수 씨가 설계를 맡아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으로 탄생한 F1963은 여러 채의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잘라내 전시, 공연을 할 수 있는 모자 마당(중정)인 'F1963 스퀘어'와 이를 둘러싸고 카페, 레스토랑, 전시장, 서점 등을 배치하면서 마치 3개의 네모가 '상자 속 상자'처럼 배열된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F1963의 총 부지 면적은 8621㎡. 공장(Factory)의 F와 고려제강(주) 수영공장이 건립된 1963년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 F1963의 시작을 알렸던 지난 2016년에는 부산비엔날레의 전시장으로 사용되면서 무려 17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다녀갈 만큼 폭발적인 호응을 얻기도 했다.



F1963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석천홀은 부산시가 향후 20년간 무상임대 사용키로 한 전시·공연장으로, 내부가 긴 공장 모습 그대로 리모델링하면서 바닥에서 무대가 올라오는 유압식 무대(11mX13m)와 조명시설, 객석 800석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석천홀은 무대와 가벽, 좌석까지 모두 이동이 가능해 공간 활용도면에서 뛰어나 여타 공연장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가능하다. 개관일인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석천홀 개관 기념으로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 필하모닉이 함께하는 'F1963 석천홀 개관 기념 음악회'가 성황리에 펼쳐져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금난새와 뉴월드 필하모닉의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은 올해도 3월과 5월, 6월에도 석천홀에서 세차례 펼쳐질 예정이다.

2018년 들어서는 F1963에 상주한 예스24 중고서점이 주최한 '우리가 사랑한 24인의 작가들-박완서부터 조남주까지'전이 지난 1월 17일까지 석천홀에서 열렸으며, 부산을 테마로 한 융복합전시 '부산 리턴즈(Busan Returns)'가 1월 27일부터 개최된다. '부산 리턴즈(Busan Returns)'는 '바다, 골목, 영화, 노래, 야구' 등 부산을 대표하는 다섯 개의 키워드를 소재로 부산 출신의 시각예술가, 건축가, 대중문화평론가, 기획자 등 다양한 문화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부산에 대한 특별한 오마주전으로, 전시는 2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야외공간인 F1963 스퀘어는 땅과 하늘, 사람이 만나는 열린 공간으로, 무대와 객석, 허브가든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는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창작무용, 월드뮤직, 멀티미디어 아트, 스트리트 댄스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던 'F1963 오픈 스퀘어'를 비롯해 F1963이 선정한 주옥같은 음악과 영상을 만날 수 있는 'Music on Screen', 서울 예술의전당이 선별한 우수한 예술 콘

텐츠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고 즐기는 'SAC ON SCREEN×F1963'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면서 F1963을 찾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F1963 스퀘어를 중심으로는 카페 '테라로사'와 발효 전통 막걸리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한식당 '복순도가', 수제 맥주 전문점 '프라이993'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테라로사는 옛 고려제강 공장의 역사를 담고 있는 특별함이 있는 공간으로, 입구에 들어서면 고려제강을 상징하는 와이어를 이용한 손몽주 작가의 설치 작품에서부터 기존 공장의 오래된 철관으로 되살린 커피바와 테이블, 당시 사용하던 발전기와 와이어를 감던 보빈 등으로 꾸며져 시민들의 출사장소로도 인기가 많다. 중정을 사이에 두고 테라로사 건너편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서점인 YES24의 오프라인 중고서점이 자리하고 있다. 활자 인쇄 프로세스부터 최신 기술의 전자책에 이르기까지 책과 출판에 관련된 정보를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걸쳐 모두 살펴볼 수 있으며, 중고서적을 매입하는 바이백 서비스, 크레마 단말기 체험존, 커피와 휴게 공간, 어린이 전용공간 키즈존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F1963 라이브러리는 올해 상반기 개관을 예정으로 지금 한창 공사 중이다. 예술·디자인·건축분야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도서관뿐 아니라 클래식 CD, LP를 이용해 음악 감상을 할 수 있고 인문학 강좌, 소규모 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F1963은 도심 속 자연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 유리 온실과 옛 공장의 수반 시설을 재활용해 만든 수련 정원, 그리고 대나무 정원이 자리하고 있어 도심의 북적함을 벗어나 사색과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조경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뜰과숲 원예점'에서는 정원만들기와 도시텃밭가꾸기에 필요한 꽃과 나무, 흙과 비료, 다양한 원예용품도 구입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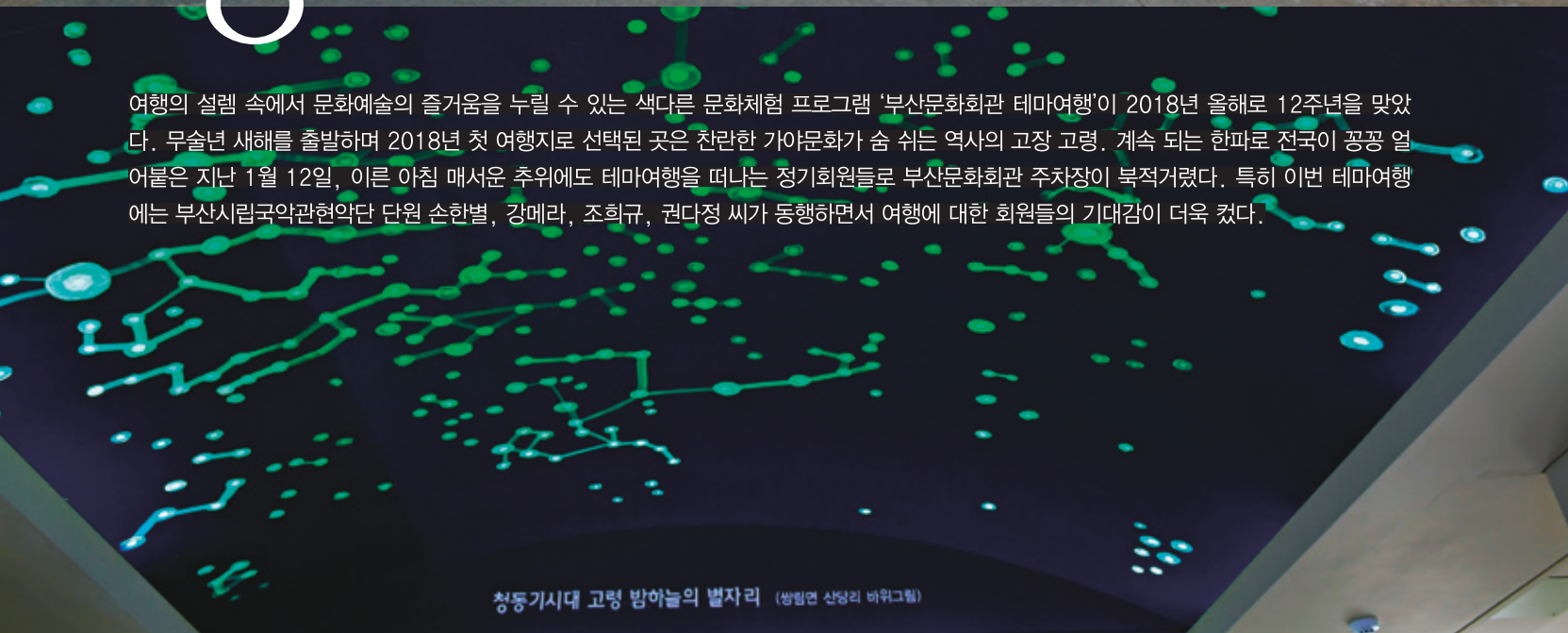


찬란한 가야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고장

# 고령

24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이 2018년 올해로 12주년을 맞았다. 무술년 새해를 출발하며 2018년 첫 여행지로 선택된 곳은 찬란한 가야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고장 고령. 계속 되는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지난 1월 12일, 이른 아침 매서운 추위에도 테마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들로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이 북적거렸다. 특히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손한별, 강메라, 조희규, 권다정 씨가 동행하면서 여행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감이 더욱 컸다.

청동기시대 고령 밤하늘의 별자리 (쌍림면 산당리 바위그림)



이번 고령 여행의 첫 목적지는 찬란했던 대가야의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가야박물관. 출근길 교통사고로 도로가 막히면서 예정시간보다 30분 늦게 고령에 도착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서둘러 대가야박물관 탐방에 나섰다. 대가야와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대가야박물관'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고령의 선사시대부터 근대의 유적과 유물을 전시한 대가야역사관과 지산동 44호분 발굴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대가야왕릉전시관, 그리고 우륵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 해설사의 상세한 해설을 들으며 '대가야역사관'과 '대가야왕릉전시관'을 둘러봤다. '대가야역사관'은 대가야의 여명과 성립,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 대가야 이후의 고령 등 테마별 전시관으로 꾸며져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고 있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마침 지산동 518호분의 발굴조사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기획전 특별전 '대가야왕릉 속의 비밀, 지산동 518호분'이 열리고 있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은 대가야 최고지배집단의 고분이 모여 있는 곳으로, 총 704기의 봉토분(封土墳)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고분군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 처음 발견된 이래 1977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704기 중 12기의 봉토분을 발굴·조사했다. 이 중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발굴조사를 마무리한 518호분은 지산동 고분군 남쪽에 자리한 봉토분 중 최초로 조사된 고분으로,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5기의 순장무덤은 축조단계를 달리하여 만들어져 대가야의 순장문화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개된 유물은 관모장식, 귀걸이 등 장신구와 갑옷, 투구, 말갖춤(馬具類) 등 무기류를 포함한 출토 유물 257점으로, 도굴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신구와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각종 말갖춤이 발굴되면서 무덤 주인공의 신분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전시를 모두 둘러본 후에는 인근에 자리한 '대가야왕릉전시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국내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무덤인 '지산동 고분군 제44호분'을 실물크기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으로, 전시관에 들어서자 무덤의 구조와 축조방법, 순장자들의 구체적인 매장 모습까지 생생한 무덤현장이 회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물관을 모두 둘러본 후 박물관 뒤편 산기슭에 출지어진 고분군을 뒤로 하고 다음 목적지인 개실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골'이라는 뜻을 지닌 개실마을은 영남학파의 종조(宗祖)인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후손들이 모여사는 집성촌으로, 지금은 전통체험 및 농촌체험, 한옥숙박 등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농촌체험 마을로 각광받고 있다. 마을의 60여 가구 중 80% 정도가 기와집인 전통 있는 한옥마을로, 기와집과 주위를 둘러싼 논, 대숲, 솔숲이 어우러진 풍광이 더없이 평화롭다.

점심시간에 때맞춰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있는 점심 식사가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블리 점심식



사를 마친 후에는 테마여행 출발부터 회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부산시립국악관 현악단 단원들의 연주회가 펼쳐졌다. 우리 귀에도 친숙한 창작국악곡에서부터 가요, 민요메들리까지 손한별(대금, 소금), 강메라(신디사이저), 조희규(아쟁), 권다정(해금) 씨가 빛어내는 아름다운 국악선율에 회원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개실마을에서의 다음 일정은 '옛 만들기 체험'. 금방 만들어진 뜨끈뜨끈한 검은 빛깔의 조청을 2인 1조가 되어 늘이기를 반복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흰 옛 가락을 만들 수 있다. 마을주민의 설명에 따라 2인 1조 옛 만들기 도전에 나선 회원들은 난생 처음 만들어보는 옛 만들기에 서로 쳐다보며 웃기 바빴다. 자꾸 손에 붙는 조청덩어리를 쌀가루를 묻혀가며 계속 늘이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아는 하얀 옛가락이 완성됐다.

회원들은 체험 후 직접 만든 옛과 함께 마을주민들이 만든 한과를 맛본 후 해설사와 함께 본격적인 마을 탐방에 나섰다. 처음 방문한 곳은 개실마을의 중심이 되는 점필재 종택. 고풍스러운 기품이 서려있는 종택은 앞쪽의 사랑채와 뒤편의 안채, 좌우의 고방채와 중사랑채가 전체적으로 ㄱ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오른쪽 뒤편에는 점필재 선생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까지 자리하고 있어 영남 전통한옥의 구조와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종택 옆에 자리한 서림각은 김중직 선생의 유물을 보관하던 곳으로, 현재 이 곳에는 유물 사진만이 남아 있고 이 곳에 보관되었던 유물은 대가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마을 탐방을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희망찬 2018년을 시작하며 열렸던 고행 테마여행은 천년을 이어온 찬란했던 가야문화만큼이나 오랫동안 회원들의 가슴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12주년 기념 ‘다시 떠나는 경주 수학여행’



### 일정

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09:30	경주 도착, 불국사, 석굴암 탐방
12:00	중식
13:00	문무대왕릉, 감은사지 등 탐방
16:00	부산으로 출발

**3.9**월 매달 둘째주 금요일 펼쳐지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12주년을 맞아 테마여행 첫 출발지인 경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불국사, 석굴암을 시작으로 신라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도(古都) 경주로 역사여행을 떠난다.

## 02 월 테마여행 당첨자

### ● 신규 회원

강민서(부산진구 가야대로)	송미애(연제구 월드컵대로)
권영숙(남구 못골번영로)	예종로(해운대구 해운대로)
권환상(수영구 광안해변로)	이두희(남구 진남로)
김인태(기장군 대청로)	이지영(동래구 금강로)
문석춘(연제구 세병로)	정필문(동래구 양운로)

### ● 기존 회원

권정숙(남구 전포대포)	송만오(남구 석포로)
김길자(남구 우암로)	안영수(금정구 중앙대로)
김나라(금정구 오륜대로)	윤영기(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김상윤(남구 유엔평화로)	정봉진(남구 황령대로)
김성률(사하구 대대낙조2길)	주덕(금정구 금단로)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전화·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 Friendly Concert

2018. 2. 24(토)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피아노 이영옥 안무지도 노금선  
우정출연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마원휘, 반주/이예슬)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 균일 2,000원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607-3170~1



부산시립합창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객원지휘자 민인기  
(부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 민인기 지휘자 초청연주회

## “꽃, 그리고 사랑”

2018. 3. 2(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MASS in 1991 / Douglas Coombes (1935~)

Kyrie  
Gloria  
Credo  
Sanctus  
Benedictus  
Agnus Dei

“꽃, 그리고 사랑” 주제의 아름다운 한국 합창음악

진달래꽃 / 윤학준  
다시 피는 꽃 / 전경숙  
강 건너 봄이 오듯 / Arr. 김민아  
꽃잎어 / 조혜영

“멋진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When you wish upon a star / L. Harline & N. Washington  
Eldorado / E. Diemer  
Tonight / L. Bernstein  
I'll make the Difference / M. Hogan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 관람료 : 균일 10,000원 ◆ 예매 : www.bscc.or.kr ◆ 문의 : 607-3116(시립합창단), 607-6074~5(정기회원)

◆ 할 인 :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중·고등학교, 다자녀가정, 임산부, 의사자 및 유족, 의상자 및 진격가족, 모병납세자

30% 단체(30명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문화예술인페어스 소지자, 대학생/학생증소지자)

20% 단체(20명 이상, 가족합창(3인 이상 가족), 외국인)





눈과 세상 사이,  
카메라가 담은 것은  
마음이였다.



전쟁이라는 고통을 짓기  
못해 눈의 눈으로 가진다. 일어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가.



세계라는 커다란 것과  
역사라는 끊임없는 것  
사이에는 우리가 있다.



우리 인생처럼, 산동상이를  
돌면 정상일까 싶은데,  
또 오르막이 이어지는 진실.



2018년을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겨울 가장 따뜻한 인생전시 1월 1일 오픈!

# LIFE

# BUSAN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展**

2018.1.1 MON  
— 4.8 SUN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디커뮤니케이션, 유니크퍼스 티켓: 하나티켓 문의: 070.7542.8531

[www.seelife.co.kr](http://www.seelife.co.kr)



# View Plus

## INVITATION TO THE ARTS

###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스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7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III **천재의 고뇌와 모방**



지휘자 최수열



피아노 박종화

지난해 9월, 최수열 상임지휘자 취임 후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해오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월 8일 제537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세 번째 무대를 마련한다.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풍부한 색채의 음향과 섬세하고 교묘한 모티브 기법으로 표현된 슈트라우스의 명작 '그림자 없는 여인, 교향적 환상곡'을 비롯해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 오늘날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 연주된다.

특히 호쾌한 타건과 스타일리시한 기교로 청중을 사로잡는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차이코프스키의 걸작 '피아노 협주곡 제1번'으로 첫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스페인 마드리드 소피아 왕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독일 뮌헨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박종화는 유학 당시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 뮌헨 헤르쿨레스 홀, 마드리드 국립 콘서트 홀 등 세계 유명 공연장을 무대로 연주했으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 보스턴 심포니, 뉴햄프셔 심포니, 드레스덴 심포니, 상트 페테르부르크 심포니 등과 협연하면서 유럽 평단으로부터 '번개처럼 나타난 한국의 젊은 천재'라는 찬사와 함께 '불멸의 거장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의 연주를 능가한다'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199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피아노콩쿠르 최연소 입상(5위) 및 최우수 연주자상과 함께 포트리 안드리센이 수여하는 비평가상을 동시에 수

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박종화는 1998년 루빈스타인 콩쿠르 특별상에 이어 스페인 산타데르 국제피아노콩쿠르 특별상과 청중상, 2003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입상 및 부조니상을 수상하며 세계무대에 스타 탄생을 알렸다. 박종화는 2007년, 그의 나이 33세 때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로 부임한 후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도시 재생 예술 프로젝트 '달려라 피아노'와 'BACH in the Subways'의 예술감독으로 참여하여 음악예술의 사회 확산에도 주력해오고 있다.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으로, '마술피리'는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석 달 전인 1791년 9월, 빈에서 초연되었다. 모차르트는 그 당시 '마술피리' 초연을 불과 이틀 앞두고 간신히 탈고했으며, 서주를 동반한 소나타 형식의 이 서곡은 가장 나중에 완성됐다. 마지막 곡인 슈트라우스 오페라 '그림자 없는 여인'은 슈트라우스와 작가 호프만스탈이 함께 만든 일련의 음악극 중에 가장 장대한 시공간에서 전개되는 걸작으로, 작품 속 세계관은 그가 동경했던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연상시킨다. 특히 슈트라우스는 '차원이동음악'을 비롯해,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나타나는 가창 없는 관현악파트를 모아 1946년 '교향적 환상곡'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럽신인 오페라 갈라콘서트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신인 성악들이 마련하는 '유럽신인 오페라 갈라콘서트'가 2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서울예술고등학교 전임 지휘자, 예술의전당 전속 어린이 예술단 기악 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정병휘가 객원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김리라, 정한나, 임수연, 테너 이명현, 이준범, 정필립, 바리톤 이규봉, 조병익, 베이스 김신호가 출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베르디, 로시니, 칠레아, 푸치니, 벨리니, 구노, 도니체티, 모차르트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지난 2016년 프랑스 로베르트 마사드 국제콩쿠르 오페라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김리라는 지난해 프랑스 국립오페라극장 데뷔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17 이탈리아 국제콩쿠르 'Franca Mattiucci' 2등, 2016 벨기에 국제콩쿠르 'Triomphe de l'Art' 1등을 수상한 정한나는 현재 독일 Goerlitz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Der Consul'에 캐스팅되어 활동하고 있다. 임수연은 이탈리아 파비아주 Teatro Besostri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독일 바드엔드도르프 Gut Immling 국제성악콩쿠르 2등 및 청중상, 이탈리아 몬티끼아리 Teatro Bonoris 콩쿠르 우승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노이에 슈팀텐 국제콩쿠르 우승, 칠레 Luis Sigall 국제콩쿠르 우승, 독일 SWR 방송극 Junge Opera Stars 우승 등 다수 콩쿠

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이명현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로 유럽 데뷔무대를 가진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왔다. 독일 드레스덴, 뮌헨, 오스트리아 빈, 잘츠부르크를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준범은 2014년 오스트리아 '델오페라(dell'Opera)' 콩쿠르에서 3위 및 2개의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 리옹오페라페스티벌 임링 콩쿠르 3위, 테오도리니 콩쿠르 2위 및 청중상, 특별상, 2016년 그란디보치 콩쿠르에서 1위 수상한 바 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정필립은 JTBC '팬텀싱어' 시즌 2에 출연, '농부 테너'로 화제를 모으며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밖에 독일 뮌헨 ARD 3위, 이탈리아 레나타 테발디 2위 및 특별상, 그리스 마리아 칼라스 2위, 스페인 빌바오 3위 등 세계 유수의 콩쿨에서 입상하고 유럽 전역에서 오페라가수 및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봉, 2016년 이탈리아 'ANDREA CHENIER' 국제콩쿠르 1위 및 특별상, 2016년 이탈리아 'SALICE D'ORO' 국제콩쿠르 1위 및 특별상 등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병익, 스페인 사바델오페라극장 라 파란둘라(LA FARANDULA)에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으로 데뷔무대를 가진 후 스페인을 중심으로 오페라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신호가 관객들과 만난다.

**일시** 2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한 앙상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이 2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열렸던 ‘프랑스 실내악의 밤’을 시작으로 매년 수준 높은 앙상블 무대를 선사해온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변애영, 김가람,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피호영,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최주연, 플루티스트 필립 베르놀드, 이소영, 이주희가 출연, 작곡가 브람스를 비롯해 하이든, 헨델, 파가니니, 라이네케, 도플러 형제, 클라라 슈만 등 다채로운 곡으로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이번 무대의 예술감독인 피아니스트 변애영은 깊은 울림과 우아하고 섬세한 터치를 가진 피아니스트라 평가받으며 현재 파리 샤프레 극장, 마씨 오페라 등에서 오페라 코치로, 파리 국립 음악원 어시스턴트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열적인 연주로 ‘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로랑 코르샤는 바흐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넘나드는 레퍼토리로 유럽의 까다로운 평론가들을 사로잡았으며 프랑스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Victoires de la Musique와 예술기사훈장(Chevalier des Arts et Lettres)을 수여받았다. 유럽 첼로계의 거장 아르토 노라스는 1966년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우승을 계기로 세계적인 연주자로 발돋움했으며, 북유럽을 대표하는 실내악페스티벌인 핀란드 난탈리(Nantali) 뮤직 페스티벌을 창설, 30년 동안 음악감독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파리국립고등음악

원 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필립 베르놀드는 23세의 나이에 프랑스 리옹국립오페라오케스트라 수석주자로 발탁되었으며 1987년 랑팔 콩쿠르 우승으로 국제무대에 솔리스트로 데뷔한 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이올린계의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은 솔리스트로서뿐만 아니라 국내 정상급 실내악단과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현재 DMZ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앙상블 유니송 음악감독, 성신여대 기악과 교수로 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가람은 현재 ‘TriÔnar’ 피아노 트리오의 피아니스트이자 앙상블 ‘Beautiful Rendez-vous’의 리더로 활동 중이다. ‘첼로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표현하는 연주자’로 평가받는 최주연은 프랑스 파리고등음악원 유학시절부터 유럽을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5년 귀국 후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한세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밖에 부천필하모닉 제1수석 플루티스트로 오케스트라 활동과 더불어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이소영, 숭실대학교 콘서바토리 초빙 교수, 예원학교, 서울예고, 부산예고 강사, 한국페스티벌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이주희가 함께 무대에 선다.

일시 2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깊은 울림과 우아하고 섬세한 터치를 지닌  
피아니스트 **변애영**

**고향인 부산에서 갖는 특별한 무대** 2016년 처음으로 유럽의 저명한 음악가들을 모시고 부산 국제 음악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랜 시간 유학과 음악활동을 하면서 그 곳에서 보고 느낀 음악을 한국에서, 특별히 제 고향인 부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매년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을 통해 유럽과 한국의 음악가들이 더 많이 음악적으로 소통했으면 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올해는 특별히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브람스의 인생에서 그가 사랑했던 음악과 사람들을 통해 그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하이든, 헨델, 파가니니 등은 브람스가 많은 영향을 받은 작곡가들로 그들의 이름을 딴 변주곡을 작곡한 바 있습니다. 라이네케는 브람스와 동시대 인물로 슈만, 브람스와 교류했던 작곡가이고 도플러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플루티스트이자 작곡가로 브람스가 항상 관심을 가졌던 대중음악과 집시 음악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클라라 슈만은 설명이 필요없는 브람스 평생의 사랑이었구요. 이렇게 브람스가 열정을 가졌던 음악들을 함께 들으며 브람스의 인생을 따라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구성해 보았습니다.

**실내악이 주는 매력** 실내악은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데 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주자들은 혼자 연습하고 혼자 연구하면서 독선에 빠지기

가 쉬운데 실내악(그것이 악기든 성악이든)을 통하여 다른 연주자들과 소통(비록 반대되는 생각으로 인해 다투다 할지라도)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또한 다른 악기들의 주법과 성악을 통하여 제가 하고자 하는 음악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 주고 더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실내악이 주는 매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에 대한 호기심**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작곡가가 어떤 곡을 쓸 때 이 음악을 통해 어떤 것을 들려주고자 하는지, 그리고 템포, 악상, 음, 리듬뿐 아니라 음 하나에 있는 작은 줄 하나도 그것을 통해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후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더불어 나의 음악으로 표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악이 나를 통해 청중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소리 하나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가를 꿈꾸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 또한 꿈꾸며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2018년 연주 일정** 2월에 프랑스에서 한국에 가기 전에 가브리엘 포레 실내악 연주가 있습니다. 4월에는 로랑 코르샤 내한공연을 함께 할 예정이고 5월, 6월에는 음악크루즈로 모스크바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까지 투어하며 각 도시에서 연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름에는 유럽 각지에서 페스티벌이, 10월에는 모로코 페스티벌 연주일정이 있구요. 그 외에 프랑스에서 크고 작은 연주 일정이 있습니다.



정열적인 연주로 '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한국을 찾는 기쁨** 한국에 여러 번 방문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이번 부산 아카데미에 초청되면서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좋은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어 기쁩니다.

**자연과 전통이 잘 어우러진 부산** 한국 중에서도 부산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을 세 번 방문하는 동안 부산에는 지난 2015년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한국의 LA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바다와 현대식 건물, 자연과 전통이 잘 어우러진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음식도 아주 맛있었구요. 지난 번 투어 때 일정이 너무 짧아 많이 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에 좀 더 오래 머물게 되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름다운 직업, 음악가** 음악가는 연습하는 그 모든 시간과 그 외의 시간에도 작곡가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들의 인생을 공부하고 그들이 남긴 모든 것들을 보며 그들과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가장 디테일한 면까지 파고들고 작곡가의 가장 내적인 면까지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

다. 그렇게 내가 보고 찾고 감동받고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연주자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렇기에 음악가들은 정말 아름다운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음악 추구**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이 악기 주법에서의 엄격함, 악보에 대한 충실함,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그 음악 안에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만의 음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8년 연주 일정** 일단 가깝게는 3월과 4월 프랑스에서 협연일정과 유럽 투어, 4월 한국 내한공연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연주 일정이 워낙 여가 많아서 지면을 통해서 다 언급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작고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졸탄 코시스와 생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녹음한 브람스 소나타와 브람스 콘체르토 음반이 발매될 예정이고 가을에 새로운 음반 작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연주하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내년 300세를 맞이하게 되어 300세 기념 연주 시리즈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ly Concert'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천상의 하모니로 맑고 순수한 음악적 정서를 선사하고 있는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 우정의 하모니를 선사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가 2월 2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03년 처음 시작된 'Friendly Concert'는 그동안 세계 정상에 어린합창단인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을 비롯해 서울, 대구, 창원, 김포, 안양, 목포, 성남,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 전국의 소년소녀합창단과 우정의 무대를 가져왔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8년 첫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정통 합창곡에서부터 창작동요, 오페라 아리아, 한국민요 메들리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지난 1973년 3월 창단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6차례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등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합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17년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에서 6개 상을 휩쓸며 최고의 합창단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5월에는 외교부 초청으로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열리는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 기념무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으로 참가, 에스토니아를 대표하는 탈린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설 예정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바다가 주는 선물(고수진 곡), Ave Maris Stella(그리그 곡), 하나님의 귀한 선물(Mary Lynn Lightfoot), And This Shall be for Music, 희망의 노래(Susanna Lindmark 곡), 학(이진륜 곡), 한국민요 메들리,

장구춤, 아리랑(우효원 곡) 등을 들려준다.

상임지휘자 마원희가 지휘하는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1996년 5월 창단한 후 매년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회를 비롯해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통영국제음악제, 제주국제음악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2010 세계 어린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으며, 과천시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창단 10주년을 맞아 가진 중국 남영시 초청공연과 2009년 5월 독일 자를란트 국제음악제 초청공연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는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1년 1월에는 국립오페라단과 조인, 중국 국가대극원과 오페라 '투란도트' 무대에 올랐으며 그해 4월에는 KBS 나눔문화대축제 '어린이에게 희망을' 개막식 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봄날의 꽃잎과 하늘의 구름처럼(오선화 곡), 도라지꽃(박지훈 곡),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조혜영 곡), 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김애정 곡), 노래하라 기쁨으로(헨델 곡), 오페라 '마술피리' 중 '파파게나와 파파게노'(모차르트 곡), 러블리 스마트폰, 우리들의 세상(조성은 곡) 등을 들려준다.

**일시** 2월 24일 토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 부산시립합창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 민인기 지휘자와 함께하는 새봄음악회 '꽃, 그리고 사랑'



지휘자 민인기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민인기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꽃, 그리고 사랑'이 3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을 맞아 신춘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정확한 해설과 풍부한 감성으로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이 시대 최고의 마에스트로 민인기의 지휘로 '꽃,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한국 합창음악에서부터 영국 작곡가 더글라스 콕스 'MASS in 1991', 현대 합창곡, 영화 OST 등 희망찬 새봄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섬세하고 세련된 합창음악, 깔끔하고 정확한 바톤 테크닉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휘자 민인기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후 도미, 뉴욕대학교에서 합창지휘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90년 합창 최고의 명문인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에서 합창지휘 전공으로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인기는 유학시절부터 촉망받는 지휘자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미국의 다수 뮤직 페스티벌 및 음악회에서 객원지휘를 맡았으며, 미국 Gloria Musica Chorale를 창단, 지휘자로도 활동했다. 북미 음악대학협의회(North American School of Music Association)와 미주 한국일보가 선정한 '21세기를 이끌고 갈 차세대 지휘자'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한 민인기는 귀국 후 부산솔리스트양상블, 서울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원주시립합창단, 부천시립합창단, 안산시립합창단 등을 객원지휘했으며 이 외에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

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청주시립교향악단, 코리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라하심포니에타, 몰도바 국립방송교향악단, 키에프방송교향악단 등 유수의 교향악단을 지휘, '정확한 해석과 감성이 있는 지휘자'라 호평받기도 했다. 민인기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성결대학교 음악학부 객원교수,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겸임교수로 있다.

첫 무대에서는 영국 출신의 현존하는 세계적인 작곡가인 더글라스 콕스의 대표곡이자 현재 세계합창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현대합창곡 중 하나인 'MASS in 1991'를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신춘음악회에 걸맞은 무대로, '꽃,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달래꽃(윤학준 곡), 다시 피는 꽃(전경숙 곡), 강 건너 봄이 오듯(김민아 편곡), 못 잊어(조혜영 곡) 등 아름다운 한국가곡을 합창으로 들려준다. 이밖에 부산시립합창단은 1941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한 영화 '피노키오' 주제곡인 '별에게 소원을(When You wish Upon A Star)', 미국 작곡가 에마 루디머의 '엘도라도(Eldorado)',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투나잇',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리스 호건의 합창곡 '나는 바꿀 수 있어요(I'll make the difference)' 등 다채로운 곡으로 관객들에게 봄 인사를 전한다.

**일시** 3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II 금난새 &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교향곡 제9번 합창'



◆ 신설령 음악평론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 세계 곳곳의 연주회장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 연주회장에서 연주되곤 한다. 이는 제4악장 합창이 이른바 '환희의 송가'로 알려지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화합의 의미도 있어 연주에 제격인 모양이다.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젊은 패기가 넘치는 힘 있는 소리로 제1악장을 시작하였다. 현 파트는 힘이 있으면서도 유려한 소리를 만들어 내고, 관 파트도 대체로 좋았다. 2악장에서는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긴 호흡으로 노래해야 하는 3악장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음악적 몰입을 이끌어 낸 것은 지휘자의 역량이었을 것이다. 베토벤이 이 곡을 쓸 당시는 그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 때였다.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진지한 베토벤의 음악보다는 로시니의 음악에 대한 빈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베토벤의 심기가 조금은 불편했을 터이고, 한편으로는 왈츠에 대한 지나친 애호도 있었던, 음악적 취향도 다양하고 음악적 철학도 다양했던 시대였다. 그런데 그의 힘든 삶과는 관계없이 3악장은 얼마나 아름답고 4악장은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계속되는 4악장 도입부에서는 더블베이스와 함께하는 첼로의 역할이 돋보였으며, 더욱 시선을 끄는 것은 대규모 아마추어 합창단이 무대에 선 것이었다. 물론 합창 교향곡 연주 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다. 이 곡에서 소프라노가 소리 내기에는 높은 음이 좀 많은 편이어서 포르테로 노래할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피아노로 고음을 노래하는 부분에서는 음정이 불안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성 합창의 소리는 때

때로 거칠기도 하다. 그러나 어찌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유명 지휘자와 눈을 맞추며 베토벤의 음악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그들에게 평생 기억될만한 특별한 순간이리라. 또한 무대에 선 그들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많은 이들이 베토벤의 음악과 교감하는 특별한 음악적 청취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기획에서 얻은 커다란 유익 중 하나일 것이다.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듣노라면 '생각의 힘'이 맺는 열매를 보게 된다. 1793년 베토벤의 친구가 실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본에 장래가 유망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위대한 것이나 숭고한 것에 아주 심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러의 '환희의 송가'에 곡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베토벤을 소개하고 있다. '위대한 것', '숭고한 것'에 심취했던 베토벤은 그의 삶은 힘들었을지라도 '숭고한 것'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았고 20대 때 마음에 두었던 것을 50대 때 세상에 열매로 내놓는다. 베토벤이 작품 활동을 하던 19세기 초 빈의 음악적 취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을 내세우는 것이었으나 빈의 특정 살롱들을 중심으로 음악적 진지함과 박식함의 가치를 인정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오늘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며 그가 자신의 교향곡 속에 담은 인류애에 대해, 숭고한 것에 대해, 진지한 음악에 대해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

## 모멘텀 속의 모멘텀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 뿌리아 김 사진작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빛을 잘 관찰하라는 것이다. 빛이 어디에서 오며 그 빛이 비추는 대상이 무엇인지, 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들은 결국 무엇을 가리는 암부로 드러나야 하는지 촬영하기 전에 생각해 보라고 한다. 사진을 잘 찍으려면 빛을 관찰하고 주위의 사소한 것들을 발견하고 주시하라고 한다. 가장 훌륭한 사진은 사소한 것을 비추는 빛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진이 좋지 못한 것은 그 사진에 빛과 그림자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나 대상에 좀 더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른다고 말해준다. 혹은 촬영자의 생각이나 관점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보라고 말한다. 사진은 빛이 비추는 대상과 사건, 상황 등에 대해 사진가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기록하고 표현하는 매체이다. 가끔 우연히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빛그림이 포착된다면 그것은 빛과 시공간이 만들어준 기대가 어긋난 황홀한 모멘텀이리라!

‘라이프 사진전’ 전시장에 들어서니 ‘The City that will be heard(68년 3월 8일)’ 사진이 눈에 띈다. 이 사진은 외계인에게 지구의 평범한 가족사진을 보여주고자 5대를 촬영한 가족사진이란 다. 4대의 실존과 초상사진으로 대신하는 돌아가신 조상의 모습이 한 프레임에 오롯이 담겨있다. 사진은 보이는 것(가족들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것(조상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함께 담은 마술 상자 같다. ‘The Age of Loss(상실의 시대)’ 섹션에는 막 암살된 사람이라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게 촬영된 케네디가 보인다. 쓰러지는 그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은 몸이 크롭되어 그들의 구원의 손길만 부각된다. 배경에 보이는 십자가는 장면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구성한다. 케네디를 부축하고 있는 동양인의 모습은 역사적인 찰나에도 미국의 관용을 보여주는 모멘텀이다. 죽음의 순간에 케네디 얼굴에 떨어지는 빛은 처연하면서도 아름답다. 전시된

작품들 중 Bill Eppridge의 이 사진은 가히 압권이다. <라이프>는 정보제공, 여론형성, 의제설정, 환경감시, 오락제공 등 언론이 담당해야 할 많은 기능들을 수행해 왔다. 2007년 <라이프>가 폐간될 당시 전 세계의 많은 열독자들과 사진가들은 좌절하며 안타까워했다. 인터넷과 SNS 보급 등 매체환경의 급변은 오늘날 인쇄매체를 쇠퇴의 길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불가항력적이라고 할지라도 유진 스미스가 <라이프>를 떠날 때의 심경은 다시 한 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라이프>가 과연 인간과 인간의 삶에 제대로 초점을 맞추었는가! 인간사의 난제를 흥미 위주와 가십거리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나. 고든 파크스는 말한다. “사진은 차별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이다.” 사진의 본질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전쟁으로 고통 받는 삶들에 대해 그리고 다수에 의해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위해 사진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기여해야 한다. <라이프>의 모토는 ‘살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While there’s Life, there’s hope)’와 ‘인생을 보려면 세상을 봐라(To see Life; see the world)’이다. 그런데 <라이프>는 주로 어떤 인생과 세상을 보아 왔을까? 이것은 사진하는 본인에게 되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혹시 기념비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에 집중하며 사건을 이슈화시키기에 급급하고, 흥미 위주의 호기심 자극이나 권력에 편승된 시각 등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모든 모멘텀은 거대하고 위대한 순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사소하고 미미한 것들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사진의 프레임 속에서 빛나는 구성과 순간, 눈부신 스토리와 사건을 발견해 가며 자신만의 작은 모멘텀을 만들어 볼 발걸음을 부산문화회관 전시실로 재촉해 보는 것은 어떨까.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라이프 사진전’이 4월 8일까지 열리고 있으니 말이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일 시** 2018년 1월 1일(월)~4월 8일(일) 전사실  
**입장료** 성인(만19세~64세) 1만 3천원  
청소년(중·고교생) 1만 1천원  
어린이(48개월~초등학생) 9천원  
45개월 미만 무료(증빙서류 지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70-7542-8531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 ‘라이프 사진전’. 그동안 국내 전시에서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130여 점을 엄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부터 평범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지난 세기의 역동성을 생생히 전한다.

전시는 20세기를 바라보는 20가지 이야기가 담겨있는 ‘This is LIFE’, 하나의 스타일이 되어버린 상징적인 인물과 사건을 나란히 배치한 ‘Icon’, 오로지 20세기에 탄생한 물건과 현상에 대한 오마주를 담은 ‘20th Century Life’ 그리고 사진집지 ‘라이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시선을 보여주는 마지막 섹션 ‘Hope’ 등 47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6회 재부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일 시** 2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재부 어머니회  
010-9669-5449, 010-4666-6995



지난 1925년 우리나라 최초로 음악과가 설립되어 전문음악인을 양성해 온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있는 부산 출신의 소프라노 이수진, 피아니스트 강인아, 바이올리니스트 장희영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

이는 재부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소프라노 이수진은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이화성악콩쿠르에서 입상을, 피아니스트 강인아는 부산예술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경제신문 콩쿠르 경남도지사상, KSME콩쿠르 금상, 부산시교육청콩쿠르 은상, 글로벌음악콩쿠르 은상, 대한문화예술경영진흥회콩쿠르 2위를, 바이올리니스트 장희영은 부산예고를 실기 우수졸업하고 월드음악신문사 주최 제369회 WMN 전국학생콩쿠르 대상, 서울음악청소년교육회 주최 전국음악경연대회 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일 시** 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광역시 남구청 607-4064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여 표현력과 감성이 풍부한 창의적인 어린이를 육성하고자 창단한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지난 2009년 남구 지역 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 76명으로 창단한 남구소년소녀합창단은 이듬해 1월 창단 연주회를 가진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 부산시 청소년 합창제,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외에도 이기대달맞이축제 축하공연, UN평화음악회, 벅스코 오디토리움 개관기념 오페라 ‘토스카’, 오륙도평화축제 화합한마당 축하공연, 일제강제동원화생자 전국합동위령제 추모공연 등 남구의 어린이문화사절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지휘/김주곤 ● 반주/이소진
- 특별출연/나무사이, 더 뮤지코어



**비바체임버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Romance’**

**일 시** 2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단장 설유리 010-8510-4654



음악을 사랑하며 배우고 도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열정과 용기있는 단원들로 결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비바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지난 2013년 2월 23일 첫 합주를 시작으로 창단된 후 그동안 크고 작은 연주회를 통해 실력 향상과 관객들에게 감동과 행복의 무대를 선사해온 비바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Romance’라는 부제로 아름답고 낭만적인 러시아 작품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단조 작품 18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단조 작품 64 2악장  
라흐마니노프/교향곡 제2번 단조 작품 27 3악장  
보로딘/오페라 ‘이그르 경’ ‘폴로베츠인의 춤’

- 지휘/다니엘스김 ● 피아노/공숙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7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국**  
**사이클 Ⅲ 천재의 고뇌와 모방**

**일 시** 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해오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하는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국 사이클’ 세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 차이코프스키의 걸작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들려줄 협연자 박중화는 호쾌한 타건과 스타일리시한 기교로 청중들을 사로잡아 왔다.

**프로그램**

슈트라우스/그림자 없는 여인, 교향적 환상곡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서곡  
차이코프스키/피아노 협주곡 제1번

- 지휘/최수열(상임지휘자)
- 협연/피아니스트 박중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기원**  
**부산시립-강원도립극단 교류공연**  
**메밀꽃 필 무렵**

**일 시** 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인 4매까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에서 신청 가능)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극단이 2018년 첫 번째 공연으로 마련하는 부산시립-강원도립극단 교류공연 ‘메밀꽃 필 무렵’. 2월 19일부터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강원도립극단을 초청, 한국 근대단편 소설의 백미라 불리는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을 선보인다. 1930년대 대표 작가 중 하나인 이효석의 후기 작품으로 그의 산문적 서정성이 가장 잘 드러난 ‘메밀꽃 필 무렵’은 달빛 아래 메밀꽃이 하얗게 핀 밤길을 배경으로, 엷은 얼굴 때문에 여자되는 인연이 없던 허생원의 애뜻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 원작/이효석 ● 극본/정병철
- 연출/윤정환 ● 예술감독/신숙현

## 제1200회 MBC목요음악회 다원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음악회

**일 시** 2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국악의 저변확대와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다원국악관현악단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제 1200회 MBC목요음악회.

단장 송강수, 지휘자 한명길을 중심으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있는 연주자 40여 명으로 구성된 다원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파고드는 깊이 있는 소리와 다양하고 테크니컬한 연주를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 지휘/한명길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럽신인 오페라 갈라콘서트

**일 시** 2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유럽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리라, 정한나, 임수연, 테너 이명현, 이준범, 정필립, 바리톤 이규봉, 조병익, 베이스 김신호가 마련하는 유럽신인 오페라 갈라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예술고등학교 전임 지휘자, 예술의전당 전속 어린이 예술단 기악 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정병휘가 객원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베르디, 로시니, 칠레아, 푸치니, 벨리니, 구노, 도니제티, 모차르트 등 우리 구에 친숙한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로시니/오페라 '신데렐라' 중 '사랑하는 내 딸들이'  
칠레아/오페라 '아를르의 여인' 중 '페데리코의 탄식'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이제 미미는 돌아오지 않는다' 등 수록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Friendly Concert'

**일 시** 2월 24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0



천상의 하모니로 맑고 순수한 음악적 정서를 선사하고 있는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 우정의 하모니를 선사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지난 2003년 처음 시작된 'Friendly Concert'는 그동안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을 비롯해 전국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 우정의 무대를 가져왔다. 2018년 첫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정통 합창곡에서부터 창작동요, 오페라 아리아, 한국민요 메들리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출연단체/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마원휘)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일 시** 2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한 앙상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피아니스트 변애영, 김가람,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피호영,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최주연, 플루티스트 필립 베르놀드, 이소영, 이주희가 출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Aimez-vous Brahms?)'라는 부제로 작곡가 브람스를 비롯해 하이든, 헨델, 파가니니, 라이네케, 도플러 형제(프란츠 & 칼 도플러), 클라라 슈만 등 다채로운 곡으로 실내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 영화 속 클래식 시리즈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고흐 VS 고갱

**일 시** 2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 02-766-7623



지난 2010년부터 대학로 1m클래식아트홀에서 매진행진을 이어온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부산 공연.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은 그림을 보며 클래식을 감상하고, 음악을 들으며 미술작품을 보는 예술 융합프로그램 형식의 '체험형 공연'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쇠라의 점묘법을 시작으로 고흐, 마티스, 김홍도 편을 꾸준히 제작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속헌 클래식 큐레이터의 명쾌한 해설로, 화가 고흐와 고갱이 함께 고민했던 예술세계와 그들의 열정, 갈등을 주제로 영화 속 클래식의 매력에 빠져본다.

## 부산시립합창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민인기 지휘자와 함께하는 새봄음악회 '꽃, 그리고 사랑'

**일 시** 3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민인기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꽃, 그리고 사랑'.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을 맞아 신춘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정확한 해설과 풍부한 감성으로 울리는 이

시대 최고의 마에스트로 민인기의 지휘로 '꽃,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한국 합창음악에서부터 영국 작곡가 더글라스 쿡스 'MASS in 1991', 현대 합창곡, 영화 OST 등 희망찬 새봄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지휘자 민인기는 섬세하고 세련된 합창음악, 깔끔하고 정확한 바톤테크닉으로 인정받고 있다.



음악 | Music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14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28일 '문화가 있는 날' 일반 7천원, 청소년 3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7일(제635회) 젊은 성악가들의 사랑 이야기  
'방랑, 시 그리고 사랑'



바리톤 최은중, 테너 문일환, 소프라노 권수현, 피아노 임은주 등 예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젊은 성악가들로 구성된 '노래하는 예술가'의 무대. '노래하는 예술가'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추구하며 성악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며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젊은 예술가 단체로, 이번 무대에서는 영미가곡과 독일가곡, 스페인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R.V. 윌리엄스/여행의 노래  
슈만/시인의 사랑  
로드리고/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  
레하르/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등

21일(제636회) 양라윤 독창회 '겨울연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러시아 마그니토고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 박사과정을 졸업한 소프라노 양라윤 독창회. 현재 이화성악회, 경남성악회 회원으로 있는 양라윤은 러시아 첼라빈스쿠주 초청 연주, 서울프라임오케스트라 초청 협연, 부산MBC 목요일 오페라 '라보엠', '사랑의 묘약', '라 트라비아타' 등 다수 오페라 주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로시니/베네치아의 곤돌라 경주  
프랑크/루이 아라공에 의한 2개의 시  
말리/세레나데  
브리튼/카버레 송 등 수곡  
● 피아노/정은정  
28일(제637회) 에클라 피아노 트리오 창단연주회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주연, 첼리스트 김나래, 피아니스트 하승경으로 구성된 에클라 피아노 트리오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피아노 트리오 제2번 마단조 작품 67  
피아졸라/봄  
멘델스존/피아노 트리오 제1번 라단조 작품 49

박소운 클라리넷 독주회

**일 시** 2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박소운 010-5529-6404



화려한 테크닉과 자신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는 신예 클라리네티스트 박소운의 두 번째 독주회. 부산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소운은 이번 무대에서 드뷔시, 비도르, 풀랑크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프랑스 특유의 낭만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드뷔시/클라리넷을 위한 첫 번째 광시곡  
피에르네/클라리넷을 위한 칸초네타  
비도르/서주와 론도  
생상/플루트와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타란텔라  
풀랑크/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 플루트/이유빈  
● 피아노/김현지

엄마랑 아가랑 합창단 창단연주회

**일 시** 2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롯데백화점 광복점 10층 문화홀  
**입장료** 전석 5천원(유아 무료 입장)  
**문의** 단장 홍임정 010-2252-1393



노래로 행복해지고 노래를 부름으로써 아이들과 가정이, 더 나아가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 뜻을 같이 하는 어머니들로 구성된 엄마랑 아가랑 합창단 창단연주회.  
엄마랑 아가랑 합창단은 지난해 2월 25일 창단된 후 매주 토요일 오전 정기모임을 통해 유아 음악놀이와 어머니 합창, 엄마랑 아가랑 함께 노래부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있다.  
● 단장/홍임정(유아 음악놀이 전문가)  
● 지휘/김종석(합창 지휘자)  
● 반주/박성미(오페라컴퍼니 반주자)  
● 특별출연/후브라스콰이어, 윤미희(마림바)

피아니스트 이준호 독주회

**일 시** 2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한경애 010-4666-8957



부산대학교 예술영재원을 수료하고 부산예술중학교 전공우수자, 비엔나 콩쿠르 피아노 대상, 음악교육신문사콩쿠르 피아노 1위, 전국글로벌콩쿠르 피아노 은상 등을 수상한 이준호의 첫 번째 피아노 독주회. 현재 부산광역시 예술영재원 심화반에 재학 중인 이준호는 유니세프기금 조성 음악회(제84회, 85회, 86회), Cantare Piano Ensemble 정기연주회, 부산광역시 예술영재원 앙상블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바흐/칸타타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 BWV. 208  
베토벤/소나타 제27번 마단조 작품 90  
쇼팽/발라드 제1번 사단조 작품 23  
리스트/사랑의 꿈 제3번 등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일 시** 2월 8일 목요일 오후 7:00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 010-3824-7143



지난 2008년 10월, 음악을 아끼고 사랑하는 청소년 연주자들로 창단된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감성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는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공연, 특별연주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발전에도 힘써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J.F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단원 겸 윈드 오케스트라 악장 부산 클라리넷 파르렛 리더,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음악감독으로 있는 김태훈의 지휘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뮤지컬, 영화음악, 샹송, 팝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V-brass 제2회 정기연주회 관악기 국악을 만나다

**일 시** 2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V-brass 010-5879-3267



박춘호(1st 트럼펫), 마창범(2nd 트럼펫), 최희진(호른), 김정현(트롬본), 김정훈(튜바), 김영훈(타악기) 등 6인의 젊은 금관주자들로 결성된 V-brass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V-brass는 비브라토(Vibrato)라는 음악용어

에서 붙인 이름으로, 우리의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픈 단원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에서부터 영화OST, 팝송, 가요, 민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Penny lane, Carnival of Venice, Ain't necessarily,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Children of Sanchez, 배 띄워라, 박타령, 아름다운 나라

## 류혜민 귀국 플루트 독주회

**일 시** 2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류혜민 010-4268-1909



인제대학교 음악학부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국립 세르지 폰투와즈 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국립 빌다브레 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 국립 베르사이유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플루티스트 류혜민 귀국

독주회.

클래식뿐 아니라 현대음악, 바로크 등 모든 시대 음악의 깊이있는 연주를 위해 다수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 음악적 기량과 시야를 넓혀온 류혜민은 유학 중 레 끌레도르 국제콩쿠르에 참가, 1er prix de medailles bronze를 수상했으며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쳤다. 류혜민은 귀국 후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동래구 심포니오케스트라 트레너로 활동하고 있다.

- 플루트/동현정
- 피아노/오병강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지브리OST 오리지널그룹 내한공연

### '별을 산 날' - with 어쿠스틱카페

**일 시** 2월 10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1일 일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별을 산 날'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라 이브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지브리OST 오리지널 그룹 내한공연 '별을 산 날 with 어쿠스틱카페'.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별을 산 날' OST를 작곡한 바이올리니스트 츠루 노리히로와 그가 리더로 있는 연주그룹 '어쿠스틱 카페'가 연주를 맡아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미개봉작인 이노우에 나오히사가 감독한 애니메이션 '이바라드 시간'도 일부 상영된다.

## 팬텀싱어2 콘서트 - 부산

**일 시** 2월 10일 토요일 오후 7:00 백스코 제전시장  
**입장료** R석 1만원, S석 9만 9천원, A석 5만 5천원  
**문의** (주)팜은누리 1566-9621



JTBC의 클래식 크로스 오버 오디션 프로그램인 '팬텀싱어' 시즌 2의 최종 결승 진출팀이 선사하는 최고의 무대 '팬텀싱어2 콘서트'.

시즌마다 높은 시청률과 음원 차트 석권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팬텀싱어'는 이번 두 번째 시즌에서도 성악과 뮤지컬, 록을 노래하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출연, 차원 높은 하모니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크로스오버 음악 열풍을 이끌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팬텀싱어' 시즌 2을 뜨겁게 달궜던 포레스텔라(고우림, 조민규, 강형호, 배두훈), 미라클라스(박강현, 김주택, 정필립, 한태인), 에델라인클랑(김동현, 안세권, 조형근, 이충주) 등 세 팀이 출연, 다시 한 번 뜨거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일 시** 2월 10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 010-4247-4246



지난 2000년 기장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지역민들을 위한 클래식 문화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의 2018년 정기연주회.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기장군민을 위한 별빛음악회, 차성문화제, 한여름밤의 음악회, 용소별빛음악회, 정관생태 학습문화축제, 송정 사랑의 가을음악회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가해오고 있으며 요양원, 노인복지회관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찾아가 음악을 통한 따뜻한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다.

- 지휘/홍성택(상임지휘자)
- 현연/소프라노 구민영, 테너 김지호

## 115th Jazz 와인에 빠지다

###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남경윤 트리오 with 해랑'

**일 시** 2월 14일 수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J석 4만원, R석 3만 5천원, S석 2만 5천원  
**문의**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지난 2008년 시작된 부산의 유일한 상설 재즈 콘서트로, 대회 국내외 실력있는 뮤지션들이 참가, 관객들과 함께 즐기는 재즈콘서트 'Jazz 와인에 빠지다' 2월 무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한 수상경력과 국제 무대 연주경력에 빛나는 재즈 피아니스트 남경윤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드러머 최초로 독일에서 드림스사를 받은 드러머 서미현, 자라섬 국제재즈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베이시스트 김인영, 그리고 따뜻하고 달콤한 목소리의 보컬리스트 해랑이 출연, 발렌타인데이에 어울리는 낭만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Jo daeun & kim minhwa  
Duo recital

일 시 2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조다은 010-8726-3126



부산예술중·고등학교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화, 플루티스트 조다은이 함께하는 듀오 무대. 김민화는 한양대학교 관현악과를, 조다은은 중앙대학교 관현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관현악과에 재학 중

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린과 플루트 선율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장 미셸 다마스/소나타와 콘체르토  
아콕 자데/플루트를 위한 탱고 환타지아  
슈만/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가단조 작품 105  
세자르 큐/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조각  
도플리/미국 모티브에 의한 듀에티노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33회 프롬나드 콘서트  
감사, 추억 그리고 꿈

일 시 2월 22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1층)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4

기업의 리더들이 릴레이 후원하며 부산 경제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왔던 '프롬나드 콘서트' 2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감사, 추억 그리고 꿈'이라는 주제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양경아, 첼로수석 이예성의 협연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리스트/사랑의 꿈  
포레/꿈꾸고 난 후에  
피아졸라/리베르 탱고 등 수곡

- 예술감독/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3회 자폐아, 발달 장애아를 위한 초청공연  
리비툼과 함께하는 시끄러운 클래식 연주

일 시 2월 24일 토요일 오후 3:00  
영희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리비툼 010-6401-8846

부산, 경남 출신의 피아노 전공 학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젊은 신진 피아니스트들의 앙상블 연주팀인 리비툼이 마련하는 자폐아, 발달 장애아를 위한 초청공연 '리비툼과 함께하는 시끄러운 클래식 연주'.

지난 2013년 12월 28일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세상의 구석진 자리를 음악으로 치유하는 아름다운 자신 연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리비툼은 특히 이번 무대에서 '애들이, 조용하...하지 않아도 돼'라는 부제로, 평소 공연장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자폐아, 발달 장애아와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금정문화회관 2018년 11시 브런치 콘서트  
행복한 세계여행 콘서트 '앉아서 세계 속으로'  
칸타레와 아모레의 나라 '이탈리아 음악여행'

일 시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2018년 6회 공연 동시 구매 시 30% 패키지 할인)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금정문화회관이 2018년 짝수 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마련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올해 브런치 콘서트는 세계여행 스토리텔러 김재열과 함께 떠나는 행복한 세계여행 콘서트로, 영화 속에서 그려낸 세계 명소에서의 이야기, 종합예술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 이야기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2018년 첫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칸타레와 아모레의 나라 '이탈리아 음악여행'으로, 소프라노 이윤경, 첼로 송지현, 피아노 신영주와 함께 이탈리아 음악여행을 떠난다.

GRE 기타앙상블 콘서트

일 시 3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울림아트 010-7540-1652



솔리스트로서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기타리스트 박종호, 배광수, 이건화, 이노영으로 구성된 GRE 기타 앙상블의 첫 무대.

기타(Guitar)의 르네상스(Renaissance)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GRE 기타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무곡'이라는 테마로, 무스그스키의 '민중산의 허룻밤'을 시작으로 엘가 '세비아나(스페인 전경)', 생상의 '죽음의 무도', 보로딘 '폴로베츠인의 춤', 세르지오 아싸드 '우아레케나' 등 다채로운 기타 테크닉과 앙상블을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연주되는 작품들은 어두운 밤에서 밝은 아침으로 향하는 짧은 여정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문화적, 시대적 양상의 메타포이기도 하다.

제10회 에코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3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문의 에코 플루트 앙상블 010-4592-8868

아너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음악부감독, 부산플루트 유스 앙상블 음악부감독, 부산 플루트 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조진학을 음악감독으로 기장 청소년 오케스트라 트레이너인 유은미, 부산플루트 앙상블 단원, 부산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김하나, 신현이, 나유진으로 구성된 에코 플루트 앙상블의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에코 플루트 앙상블 상임지휘자로 있는 호르니스트 백상홍의 협연으로 E. Kohler, M. Berthomieu, R. Gliere, C. Dancla, P. M. Dubois, N. Paganini 등의 작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E. Kohler/Blumenwalzer 작품 87  
M. Berthomieu/Chats, 5 Pictures  
R. Gliere/Horn concerto 내림나장조 작품 91  
C. Dancla/Ah! Vou dirai-je, Maman 등

# Program Guide

## 연극 | Play

### 국민연극 '라이어 투에'

**일 시** 2017년 11월 17일(금)~2018년 2월 25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소심한 은행원 영호의 생일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의 서류가방이 야쿠자의 돈가방과 뒤바뀐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집에 들어와 가방을 펼쳐보니 무려 100억 원 상당의 큰 돈과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 야쿠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영호와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 그를 의심하는 형사, 잠시 잊혀졌던 야쿠자 등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영호를 괴롭힌다. 상황을 무마하려고 시작한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영호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연극 '라이어 투에'는 누구나 꿈꾸는 일확천금의 행운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유쾌하게 담은 작품으로, 다른 시리즈들과 달리 한국을 배경으로 하여 친밀감을 더한다.

### 연극 '러브 액츄얼리'

**일 시** 2017년 12월 15일(금)~2018년 2월 18일(일)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1:00, 4:00  
(월·수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플레이더부산 1600-0316



100일 커플, 1000일 커플, 10년 커플을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하는 연인 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그려낸 연극 '러브 액츄얼리'.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들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러브 액츄얼리'는 사랑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들, 오해로 인한 다툼, 화해의 어려움이 연속되는 이 시대의 복잡한 사랑에 관한 설명서 같은 작품으로, 쉽게 연애하고 쉽게 헤어지는 요즘 우리네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990년대 마로니에 공원을 배경으로 한 이번 작품은 등장인물의 의상에서부터 무대, 배경음악, 작곡 소품들 하나까지 관객들을 1990년대 아련한 추억 속으로 이끈다.

● 작, 연출/이민혁

### 연극 '고양이라서 괜찮아'

**일 시** 1월 4일(목)~3월 11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2:30, 5:00, 7:30(월요일 공연없음, 2/15~2/17 오후 3:00, 5:30, 8:00, 2/18 오후 2:30, 5:00, 7:3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15세 이하 입장불가,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혼자 살고 있는 남자. 고영민은 그의 방에 종종 찾아오는 여자친구 서연이가 어느 날 데려온 암컷 고양이 '도도'를 만나게 된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영민은 어쩔 수 없이 도도와 동거를 시작하고 어느 순간 섹시한 여자로 변신한 도도에

에게 반해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도도는 영민의 여자친구 서연이 찾아오면 다시 고양이로 변신하고 영민은 그런 도도와 서연 사이에서 고민하는데...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한 고양이와의 아련한 로맨스를 다룬 연극 '고양이라서 괜찮아'는 반려동물 가운데 인간을 주인이 아닌 친구로 여긴다는 속설을 가진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고양이의 시각에서 친구인 인간을 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연극 '룸넘버 13'

**일 시** 1월 4일(목)~3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30, 6:3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15세 이하 입장불가,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국회 회기 중에 눈이 맞은 여당 국회의원 리차드와 야당총재 여비서 제인이 호텔방에서 막일을 치르려는 순간 난데없이 시체가 발견되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이 일을 국회의원 비서인 조지에

게 떠넘기려 한다. 하지만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하게 꼬여만 가고 리차드와 제인은 과연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레이 쿠니 특유의 기막힌 반전과 반전에 정치풍자성을 가미한 '룸넘버 13'은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총재 비서의 스캔들을 소재로,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황당한 상황과 이를 모면하기 위한 인간들의 모습이 큰 웃음을 선사한다.

### 코믹연극 '택시 안에서'

**일 시** 1월 5일(금)~4월 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4:00(2/14일 오후 4:00, 7:00, 2/15일 오후 3:00, 6:00, 2/16일 공연없음, 2/17일 오후 4:00, 7:00, 2/18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극단 바라 1600-1716



친구와 게임을 너무나 좋아해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 본 하영, 만나는 사람마다 통차여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 소희.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시작되는 운명 같은 만남으로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지 못하고 두 손을 놓게 된다. 사랑에 상처를 받은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너무나 늦게 사랑을 깨달은 하영은 소희를 잡으러 공항으로 향하는데...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시작되는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 '택시 안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사랑이야기 속에서 재미와 감동 그리고 반전까지, 시공간을 초월한 로맨스 코미디극이다.

### 낭만연극 '길동 포차'

**일 시** 1월 19일(금)~2월 24일(토) 수~금요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5:00  
(일·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공간소극장 611-8518, cafe.daum.net/say012



고단한 서민들의 삶을 통기타와 노래로 풀어낸 낭만연극 '길동 포차'.

다리가 불편한 길동은 허름한 포장마차를 운영한다. 포장마차에서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르는 길동은 가난하지만 멋진 아들이 있고 아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은 어릴 적 친구들을 포장마차에 초대하고, 친구들과 함께 학창시절부터 고향을 떠나고 열심히 살아온 지난 시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그가 과연 친구들을 초대할 이유는 뭘까?

연극 '길동 포차'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 작, 연출/전상배

● 출연/서원오, 김준환, 박수민, 하보배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2018 가마골 배우展  
이승헌의 메소드 연기 '수업'

일 시 1월 31일(수)-2월 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경로 및 초중고생 5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 723-0568

연희단거리패의 배우이자 메소드 연기의 교과서 같은 배우 이승헌의 무대로 선보이는 이오네스코의 대표적인 부조리극 '수업'은 지난 2002년 연희단거리패 배우를 위한 연극 시리즈로 초연된 후 2012년에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국립극장 페스티벌에 유일한 해외작으로 초청받아 이오네스코의 고향인 루마니아에서 '매우 강력하고 훌륭한 공연'이었다는 격찬을 받기도 했다.  
지난 1997년 연희단거리패에 입단한 이승헌은 '햄릿'으로 주목받기 시작해 연극 '봄날은 간다'로 제38회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아름다운 남자'로 서울연극제 남자연기상을 수상했다.



연극 '붕어빵'

일 시 2월 2일(금)-3월 4일(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목요일 공연없음) 에저뜨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극단 에저뜨 852-9161

다세대주택 드림월드를 배경으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따뜻하게 그려낸 연극 '붕어빵'. 18세의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된 세형과 18세에 아빠를 처음 만난 비즈,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거리는 이 살벌한 부자가 사는 101호, 혼자 사는 의붓언니가 걱정되어 매일매일 찾아오는 동생 수아, 그런 그녀를 차갑게 대하는 언니 하경이가 사는 102호, 그리고 드림월드의 모든 일들을 제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는 듯 지켜보며 도와주는 부녀회장이 사는 301호 등 가족, 이웃, 연인들이 어우러져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드림월드 속 사람 사는 이야기가 정겹게 펼쳐진다.

- 작/김지연
- 연출/최재민



창작뮤지컬 '파랑새특공대'

일 시 2월 7일 수요일 오전 10:15, 11:2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단체 예매 시 5천원)  
문의 극단 남비콤비 02-882-9001



신비한 마법이 가득한 클라우드 마법학교.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을 마법발표회 준비로 바쁘지만 루키는 하는 마법마다 실수만 하고 말썽만 일으킨다. 혹시 나쁜 마법이라도 걸린 게 아닐까 고민하는 루키에게 마법학교의 유쾌한 선생님 베리는 나쁜 마법을 풀기 위해 파랑새를 찾아 떠나라고 한다. 파랑새를 찾기 위해 뒤쫓박죽 세계로 떠난 루키는 추억의 숲, 욕심쟁이 숲, 거울의 숲을 지나며 사랑과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감을 찾게 된다. 과연 루키는 파랑새를 찾을 수 있을까..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명작동화 '파랑새'를 각색한 '파랑새특공대'는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루키의 모험을 통해 들려준다.

- 작/서가영
- 연출/정상식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캐리x엘리 LOVE 콘서트

일 시 2월 10일-1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장료 VP석 5만 5천원 R석 4만 5천원 S석 3만 5천원  
문의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 선사하는 라이브 콘서트 '캐리x엘리 LOVE 콘서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안무감독으로 알려진 세종대학교 석진욱 교수가 안무를 담당하고, 뮤지컬 '그날들', '형제는 용감했다'의 작곡가 황규동, 음악감독 정혜지가 참가해 기획 단계부터 화제를 모은 '캐리x엘리 LOVE 콘서트'는 어린이들의 최고의 스타 캐리, 엘리가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꼬마 캐릭터 캐리, 캐빈, 엘리 등 전문 댄서 50여 명이 칼군무를 선보이는 등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일 시 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 5천원(예매 시 1만원)  
문의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와 율동이 함께하는 세계 명작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여 살게 된 아기돼지 삼형제는 서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자신만의 집을 짓기로 약속한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 둘째 돼지는 나무로 허술하게 집을 지었지만 셋째 돼지는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 이들 삼형제를 잡아 먹으려 하는데 과연 아기돼지 삼형제는 몸집이 크고 무서운 늑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  
특히 이번 무대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로 분장한 배우들의 연기와 함께 이해하기 쉬운 노래와 신나는 율동, 다채로운 무대배경으로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영화 | Movie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첨밀밀

일 시 2월 20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부산예술회관 작은영화 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영화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부산영화인협회 서영조 회장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소개하며 관객들이 놓친 장면 속에 숨어 있던 의미와 이미지들을 짚어준다. 2월에는 꿈을 좇아 대륙발 흥행 열차를 타고 온 두 젊은 남녀의 반박되는 만남과 이별의 인연을 그린 진가신 감독, 여명, 장만옥 주연의 영화 '첨밀밀' (홍콩, 1996년 상영작, 상영시간 116분)을 상영한다.

## 콘서트 | Concert

### 2018 김광석 다시부르기 - 부산

일 시 2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천원

문의 예술기획성우 1599-1980



한 가수를 추모하는 단 일공연으로 세계에 유래 없는 최장기, 최대 규모의 대중 음악콘서트로 자리잡은 '김광석 다시부르기' 2018년 무대.

이번 무대는 통기타와 하모니카 하나로 그 시절 음악을 평정한 가객 김광석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여행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 '사랑했지만' '변해가네'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 세대를 넘어 여전히 애창되고 있는 그의 주옥같은 노래를 다시 부르며, 그의 노래와 이야기들을 통해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청춘의 한 페이지를 되돌아보는 소통과 공감의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동물원, 박학기, 여행스케이, 유리상자, 자진 거 탄 풍경, 장필순, 박시훈, 윤도현, 하동균

###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 8 - 부산

일 시 2월 23일 금요일 오후 800,

24일 토요일 오후 6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전석 7만 7천원(청소년 30% 할인)

문의 (주)하늘이엔티 1688-6675



명불허전 토크콘서트의 아이콘 김제동이 2년만의 공백을 깨고 돌아온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 8'.

150석의 대학로 소극장에서 시작된 후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는 김제동과 관객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소통하는 신개념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국내 공연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이야기와 음악으로 만들어진 더욱 끈끈하고 뜨거운 공감의 장이 될 이번 무대에서는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감동과 위로에서부터 자진 하루의 끝에 살 새 없이 웃게 되는 재미와 힐링까지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행사 | Event

### 김옥균의 클래식 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3:4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월 4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FM 목요일음악감상회를 기획 연출한 김옥균(시인, 음악치료사) 전 MBC PD가 진행하는 클래식 영상음악 해설 감상회.

내 삶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클래식음악을 만나는 시간으로, 최신 해외클래식음악연주회 상황을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프로그램

헨델의 수상음악, 왕국의 불꽃놀이 모음곡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전막 감상  
영화 속의 모차르트 음악 '쇼생크 탈출', '아웃 오브 아프리카'  
추억의 명품 콘서트 '파바로티와 친구들' 5탄  
국민주의 음악순례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음악, 그 속에는 삶이있네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9일 휴강)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일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은 지난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 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6일(641회) Ludwig van Beethoven / Symphony No.3 in e major, OP.55 - Eroica

13일(642회) Johannes Brahms / Symphony No. 3 in F major Op.90

20일(643회) Anton Bruckner / Symphony No.3 in d minor 'Wagner'

27일(644회) 이 달의 책 읽기\_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나태주 지음/지혜)

###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5일(월), 6일(화), 19일(월), 20일(화), 26일(월),

27일(화) 오후 7:30, 21일(수) 오전 10:30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5일(월) 일본의 미학·하이쿠(2)

- 강사/안수현(문학평론가,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6일(화) 이미지의 여행·여행의 이미지(2)영화, 장미의 이름

- 강사/김재기(경성대 글로벌문화학부교수)

19일(월) 객근수 클래식투어(17)카르미나 부라나

- 강사/객근수(음악평론가)

20일(화) 당당한 죽음(1) 죽음을 배우다.

- 강사/이기숙(다임터스대표, 여성인권지원센터 실림 이사장)

21일(수) 오전 10:30 랜선으로 떠나는 문화산책(1)

나는 이방인이다, 변신

- 최윤영(서울대학교 교수), 플레툰아카데미(영상, 봄비(카프카의 밤 저녁지기))

26일(월) 어떤 사랑\_보바르와 사르트르

- 강사/이왕주(부산대학교 명예교수)

27일(화) 패션, 영화를 스타일링하다(5)야한 여자 스타일과 참한 여자 스타일 '영화, 위대 한 개츠비&카페 소사이어티'

- 강사/진경옥(패션디자이너, 동명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27강 고독한 거인, 브람스의 인생과 작품세계

일 시 2월 13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시대의 흐름에 초연해서 오로지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했던 고독한 거인, 요하네스 브람스의 인생과 작품세계를 탐구한다.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_발레가 있는 무대  
**제2강 발레 이야기 2 : 낭만주의 발레**

일 시 2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9세기 낭만주의 발레의 탄생과 미학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념비적인 낭만발레 작품 감상과 더불어 발레의 신체 기본 동작 Port-de-Bras가 지닌 미학을 올바른 신체 정렬법과 스트레칭으로 경험해보는 특별한 시간.

● 강사/노영재(무용학 박사)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_서양미술 산책  
**제2강 지상에서 맛보는 '천국' - 중세미술**

일 시 2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중세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 불타오르던 때이고, 고대를 계승하며 근대의 씨앗을 품은 '빛의 시대'로, 그 빛은 성당 건축과 회화를 통해 표현되었고, 그것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한 가닥 희망이었다. 목숨을 걸고 걸었던 길고 긴 순례길이 중세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순례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진 성당은 중세 건축양식의 꽃을 피운다. 오늘날의 유산을 만든 시초인 그 중세를 이번 강화를 통해 만날 수 있다.

● 강사/이한나(아트 디렉터)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색이 삶을 말하다  
**제11강 검정(The Black) II**

일 시 2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 전문가)

전시 | Display

**앤서니 브라운展-행복한 미술관**

일 시 2017년 11월 10일(금)-2018년 3월 4일(일)  
영화의전당 비프힐 1층 다목적홀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유아, 어린이 7천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31-4295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사진전  
**사진으로 보는 근대 풍경**

일 시 2017년 11월 21일(화)-2018년 5월 27일(일)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전시실  
문의 부산시민공원역사관 850-6061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Site-seeing: 여행자'**

일 시 2017년 11월 24일(금)-2018년 2월 1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동시대 사회현상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며 다변화되고 있는 '여행'을 주제로 한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도시의 현재를 기록하며 현상을 짚어가는 김민정, 왕덕경, 이민미 등 작가 3인의 작품을 비롯해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들이 전시된다.

**영화캐릭터전 '공룡탐험대'**

일 시 2017년 11월 27일(월)-2018년 4월 1일(일)  
영화의전당 두레아움광장, 상상의 숲  
입장료 무료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소울아트스페이스 개관 12주년 기념  
**김덕기 '카디널이 보이는 풍경'**

일 시 2017년 12월 2일(토)-2018년 2월 14일(수)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  
문의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 731-5878

작가 김덕기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신작을 소개하는 '카디널이 보이는 풍경'展.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기획전  
**크리스마스 프로젝트\_낮과 밤**

일 시 2017년 12월 22일(금)-2018년 2월 1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갤러리 조이 5주년 기념 기획초대전  
**이순구 '처음, 웃는다'**

일 시 2017년 12월 27일(수)-2018년 2월 13일(화)  
갤러리 조이  
문의 갤러리 조이 746-5030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부산박물관 소장 조선통신사 기록물**

일 시 1월 9일(화)-5월 7일(월)  
부산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  
문의 부산박물관 610-7111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 중 부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공개하는 2018년 신수유물소개전.

**슈퍼픽션 두 번째 전시 'FREDDY'展**

일 시 1월 11일(목)-2월 4일(일) 롯데갤러리 부산점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점 678-2610

**배성태 일러스트展  
구름 꺼도 맑음**

일 시 2월 7일(수)-3월 5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2018 해운대 구상회 그룹전**

일 시 2월 18일(일)-2월 22일(목)  
해운대문화회관 제2전시실  
문의 구상회 010-5755-04650

● 작가/김연우, 손정애, 신영희, 김소연, 김미경, 우지현, 김재은, 이혜선

뮤지컬  
광화문  
연기

누내린  
광화문  
네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제든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누내린  
조그만 교회당

그 시절 우리가 새겨진 이곳

2018.3.16 ~ 18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안재욱 · 이건명 · 구원영 · 차지연 · 허도영 · 박강현 · 이연경 · 홍은주 · 린지(임민지) 외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1566-5490 전화예매시 / 1인 4매 ◆◆



# RECORD

GM뮤직 제공



## 힐러리 한 '레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

▶ 힐러리 한이 도이치 그라모폰 15여 년의 음악활동을 담아낸 베스트 앨범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을 통해 15여 년 동안 선보인 음악들을 모은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의 베스트 앨범으로 두 장의 CD로 구성되어 있다. 힐러리 한이 기획한 앨범으로 그동안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한 모든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시 들으며 자신에게 강한 느낌을 주는 곡들을 직접 선곡했다. 15년 동안 발매했던 각 앨범에서 한 곡 이상씩 이번 앨범에 담았다. 본-윌리엄스 '종달새의 비상'과 비외탕 '바이올린 협주곡',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미발매 라이브 레코딩인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K379', 그리고 티나 데이비스의 'Blue Curve of the Earth'와 막스 리히터의 'Mercy' 역시 새롭게 녹음해 선보인다. 독주 리사이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전 세계의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은 1997년 디아피종상, 2001년 타임지 미국 최고의 젊은 클래식 뮤지션, 2002년과 2008년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기악독주자 바이올린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 2018 그래미 노미니즈(2018 GRAMMY Nominees)

▶ 2018 그래미 시상식 주요 후보들을 총 정리한 단 하나의 앨범

올 한 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2018 그래미 시상식 주요 후보들을 총 정리한 단 하나의 앨범으로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Bruno Mars)의 '24K Magic', 라틴 음악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간 루이스 폰시(Luis Fonsi) & 데디 양키(Daddy Yankee) feat.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의 'Despacito(Remix)', 힙합 씬의 새로운 한 획을 그은 켄드릭 라마(Kendrick Lamar) 'HUMBLE', 히트곡 제조기 체인스모커스(The Chainsmokers)와 콜드플레이(Coldplay)의 콜라보 'Something Just Like This' 등 총 21곡이 수록되어 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그래미(Grammy Award)는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Recording Art and Sciences/NARAS)가 해마다 우수한 레코드와 앨범을 선정하여 주는 상으로, 1959년부터 개최해 왔다. 영화의 아카데미상에 비교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상의 이름은 축음기라는 뜻의 그래미폰에서 가져왔다. 녹음 기술, 재킷 디자인 등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시상 부문이 무려 90여 개에 이르고, 대상은 레코드, 앨범, 가곡, 신인의 종합 4개 상이 있다.



## 팬텀싱어 2

▶ '팬텀싱어' 시즌 2에 출연한 실력파 보컬리스트들의 감동적인 경연곡을 담은 앨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를 호령할 판타스틱 남성 4중창 그룹을 결성하는 대국민 프로젝트 '팬텀싱어'가 두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음악이 줄 수 있는 지상 최고의 감동 '팬텀싱어' 시즌 2에 출연한 실력파 보컬리스트들의 감동적인 경연 곡을 담은 앨범으로, 귀 호강 프로그램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고품격 음악을 선보인 '팬텀싱어'만의 명품 보이스로 놀라움과 감동을 다시 한 번 안겨준다. 이번 음반에는 방송 이후 수많은 화제를 낳았던 미라클라스의 'Feelings', 포레스텔라의 'In Un'altra Vita', 에델 라인클랑의 'Senza Parole'와 각종 클래식 차트에서 인기몰이 중인 'La Vita', '꽃이 피고 지듯이', 'Anche Se Non Ci Sei'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이번 시즌 출연진의 방송 미공개 사진도 함께 제공된다.



박현주 · 북칼럼니스트

# BOOK



## 교향곡

최은규 지음 / 마티 / 624p / 3만 3천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향곡 해설집. 클래식 입문자들을 위한 책이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입문단계를 벗어나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음악에 좀 더 깊이 빠져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기 마련이다. 입문서 단계의 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교향곡>은 클래식 음악애호가들 중에서도 교향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책이다. 저자 최은규 씨는 바이올리니스트 겸 음악칼럼니스트이다. 연주, 해설, 집필 등 음악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음악애호와 음악전문가 사이의 '벽 허물기'를 시도하는 저자가 이번에는 교향곡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다양한 연주회에서 음악애호가들과 만나고 있는 저자는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 책은 교향곡의 탄생을 일린 C. P. E. 바흐에서 20세기 교향곡의 선구자 쇼스타코비치까지 작곡가 18명의 교향곡 82곡을 다루고 있다. 작곡가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그리고 당대의 사회적 배경을 먼저 소개하고, 주요 곡들을 해설한다. 교향곡의 통시적 흐름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음악을 들으면서 작품 설명을 함께 알아갈 수도 있다. 클래식 음악 세계를 더 넓고 깊게 펼쳐준다.



## 위작의 미술사

최연욱 지음 / 매경출판 / 308p / 1만 6천원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알 것이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작이다. 이 그림이 그려진 벽은 수도원 식당 조리실이었다. 습기가 칠 수밖에 없는 장소이다. 다빈치는 '세스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는 손상되기 쉬운 기법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림은 훼손되었다. 1970년 훼손된 벽화를 되살리는 미술 역사상 최대 복원 작업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다빈치의 스케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후대에 덧칠한 물감을 벗기고 보니 그림은 처참하게 훼손돼 있었다. 이 그림을 되살린 일등 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위작들이었다. 안드레아 솔라리의 정교한 위작을 비롯해 훌륭한 위작이 있었는데, 위작을 연구함으로써 걸작이 되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미술사를 뒤흔든 가짜그림, 위작에 관한 이야기이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은 한국미술사 최대의 이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높은 북한 미술품의 경우는 중국에서 그려진 위작인 경우가 많다. 위작의 역사를 통해 미술사의 흐름과 사조의 특징을 전하는 책이다.



## 장인의 길 1, 2

서주희 지음 / 현암사 / 476p 내외 / 각 3만 5천원

KBS1 라디오에서 문화캐스터로 다양한 화제의 문화 현장을 소개하는 서주희 씨가 우리나라 장인을 소개한다. 그동안 1,000여 명에 이르는 인사들을 인터뷰해 온 저자가 우리 전통문화를 이고 지켜온 장인들의 인생을 들려주는 책이다. 우리 삶의 문화를 면면히 이어온 장인 57명의 손길과 삶의 길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저자는 오랜 시간 동안 전국의 장인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업 과정을 지켜봤다. 장인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응송깊게 담아낸 이 책은 우리 전통문화의 기록이기도 하다. 금박장 김덕환, 지수장 최유현, 누비장 김해자, 염색장 정관채 등 장인들의 작업 과정을 일일이 담아낸 사진은 그들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한다. 우리 전통문화의 오랜 역사와 아름다움은 장인들의 진솔한 육성으로 되살아난다. 장인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애환도 가감없이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전통문화를 지켜온 사람들을 얼마나 무심하게 잊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도 할 계기를 주는 대목이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전통문화의 맥을 묵묵히 이어온 장인들이 우리 곁에 남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감동을 준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책이다.





## 부산시립예술단 2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만나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2018년 올 한 해도 보다 풍성하게 펼쳐진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만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은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문화를 통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2월에는 7일 옹호종합사회복지관과 9일 마리아마을 강당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내 각 복지관을 방문, 우리춤의 아름다움과 멋을 전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찾아가는 무용-2018 복지관 순회공연'이 펼쳐진다.

### 일정

2월 7(수) 14:30 옹호종합사회복지관 \_ 국악관현악단

2월 9(금) 14:00 마리아 마을 강당 \_ 국악관현악단

2월 21일(수) 14:00 다사랑복합문화회관 \_ 무용단 '찾아가는 무용-2018 복지관 순회공연'

2월 22일(목) 10:00 영진종합사회복지관 \_ 무용단 '찾아가는 무용-2018 복지관 순회공연'

2월 23일(금) 15:00 신망애요양원 \_ 무용단 '찾아가는 무용-2018 복지관 순회공연'

2월 27일(화) 10:30 금곡종합사회복지관 \_ 무용단 '찾아가는 무용-2018 복지관 순회공연'

2월 28일(수) 11:00 서구종합사회복지관 \_ 무용단 '찾아가는 무용-2018 복지관 순회공연'



## 동성고등학교 정기회원 단체가입

60여 년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동성고등학교(교장 이득재)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했다.

그동안 초량 이바구길 체험, 부산국립국악원 '왕비의 잔치 시즌 3' 관람, 부산 앤서니 브라운 미술전 관람 등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온 동성고등학교는 이번 정기회원 단체가입을 통해 학생들에게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예술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할인혜택과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사랑받으면서 단체가입이 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인근에 위치한 석포교회가 지난 2008년부터 계속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해오고 있으며, 이밖에 그린드자연요양병원, ㈜두릉, 디자인부산, ㈜꿈든데이 등이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했다. 특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지난해 제도가 새롭게 바뀌면서 기존 회원제도보다 더 많은 할인매수와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회원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정기회원 가입이 계속 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정기회원 가입이벤트를 2월 한 달간 펼친다. 이벤트 기간 동안 VIP회원에 가입하면 USB 겸용 손난로가, 스페셜회원 또는 예술단회원에 가입하면 쿠션이 가입선물로 제공된다.

# 2018년 부산시립교향악단 결원단원 모집

## 채용직급 및 분야

구분	채용분야	파트	인원	신분
부산광역시립 교향악단 예능단원	악장	바이올린	1명	연봉계약직 (연봉계약 체결)
	부악장	바이올린	1명	
	수석단원	비올라	1명	호봉제 단원 (호봉확정)
		팀파니	1명	
	단원	비올라	1명	
		더블베이스	1명	
		호른	1명	

※ 파트별 중복지원 불가

**채용조건**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름  
 - 연봉계약직 : 최초 2년 이내 성과계약 체결(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 호봉제 단원 : 최초 1년 계약 후 재오디션 등 평가를 통해 정식 임용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상시 근무 가능자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촉연령 등의 상한연령(58세) 이하인 자

**전형방법** : 실기전형(1차), 면접전형(2차)

### ① (1차) 실기전형

- **전형일정** : 2018년 2월 22일(목)~2월 27일(화)(주말 제외)  
 ※ 파트별 세부 실기전형 일정은 별도 공고(2018년 2월 20일),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전형장소** : (재)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전형방법** : 과제곡 목록을 참고하여 파트별 연주 실시 ※ 반주자 없이 연주함

### ② (2차) 면접전형 > 실기전형 합격자 대상 실시

- **전형일정** : 2018년 3월 6일(화)
- **전형방법** : 심층면접을 통한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
- ※ 가점 : 응시원서 제출 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실기전형 적용)  
 ▶ 증명서 : 실기전형 당일 제출
- ※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에서 불합격자로 판정되거나 본인이 임용 거부의를 표시하는 경우 실기전형의 차순 위치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전형장소	합격자발표
2018. 1. 25. ~ 2. 13.(20일간)	2018. 2. 5.~ 2. 13. (16:00마감, 9일간)	실기전형	2018. 2. 22.~2. 27. (주말 제외)	부산문화회관	2018. 2. 28. 17:00
		면접전형	2018. 3. 6.	부산문화회관	2018. 3. 12. 17:00

- ※ 파트별 세부 실기전형 일정은 별도 공고함(2018년 2월 20일)
- ※ 서류접수 마감시간 : 2018년 2월 13일 16:00까지이며, 이후 시간은 접수하지 않음
- ※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이 변경될 경우 별도 알림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접수  
 - (재)부산문화회관 전자우편(bsculture1@bsoc.or.kr)으로 서류 제출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월 13일 16:00)이후 도착한 서류는 접수 처리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이력서 1부 <별지 제1호>
- ※ 증명서는 면접전형 당일 제출(졸업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등)
- ※ 최종합격자는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 결과 각 1통 및 최종합격자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경영지원팀(607-6024)







# VIP

##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8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유럽 신인 오페라 갈라 콘서트 [예약중]

2월 24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김리라, 임수연, 정한나, 테너 이명현, 이준범, 정필립, 바리톤 이규봉, 조병익, 베이스 김신호 등 지금 현재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인 성악가들의 무대.

### 유럽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예약중]

2월 25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니스트 변애영을 비롯해 김가람,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피호영,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최주연, 플루티스트 필립 베르놀드, 이소영, 이주희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마련하는 실내악의 밤.

### 베토벤 협주곡 전곡 시리즈

3월 15일(목)-17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음악의 악성' 베토벤 협주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2018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4월 13일(금), 7월 13일(금), 11월 23일(금)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실력파 해외 실내악단들이 전하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실내악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무대.

### 피아니스트 이반 크반 리사이틀

5월 18일(금)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2017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이반 크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오페라 in 콘서트 '돈 조반니'

6월 16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오페라 전곡을 대형 세트를 배제하고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Opera in Concert'.

###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회

6월 29일(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인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초청 무대.

###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

10월 20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 하는 무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4~5)

# VIP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창립총회

일자 : 2018년 1월 16일 장소 :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 추진경과
- 17. 3. : 후원회 창립 공세화
    - 창립기 후원회 운영위원 50명 선정 시작
  - 17. 4. : 창립인 준비 완료
    - 후원회 창립인대회 개최를 위한 사전활동 추진
  - 17. 5. 16. : 문화회관 실무자 상간회
    - 본격적인 후원회 운영을 위한 문화회관 실무자회의를 성립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창립 총회 성황

후원회 회원, 지역 유력인사 등 100여 명 참가  
후원회 후원금 1억원 전달

(재)부산문화회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가 지난 1월 16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발족했다.





지난해 6월 30일 후원회 발기인대회 개최 후 6개월 만에 열린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후원회 경과보고와 함께 회칙을 상정하는 한편, 그동안 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후원회를 이끌었던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창립총회에는 최수기 회장을 비롯해 박인건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후원회 부회장단인 변원탄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사라도가 회장, 윤영기 사무처장, 그리고 김윤일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장, 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 등 후원회원, 지역 유력 인사 100여 명이 참가,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이 품격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후원회가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수기 후원회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이 참여해 보람있고 명예로운 모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창립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 51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지금까지 총 1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조성된 후원금은 이날 총회를 통해 (재)부산문화회관 박인건 대표이사에게 전달됐으며, 앞으로 (재)부산문화회관 운영 및 공연·전시사업 지원에 쓰여질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앞으로도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지속가능한 후원 및 기부문화 조성에 적극 힘써 나갈 예정이다. 후원회원은 이사회원(300만원 이상)과 일반회원(100만원)으로 구분되며, 후원회원에게는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무료 주차혜택, 대극장 좌석 네이밍 등 다양한 예우가 제공된다.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압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회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김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성승모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신명희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상현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조총영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진경옥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현임숙 브니엘 예술고등학교 부장

※ 창립총회일(2018년 1월 16일) 기준 가입자 명단

※ 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예술에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대극장 좌석 네이밍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 회원별 예우 ○

단위: 만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1회 무료 (연간)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2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회비는 2018년부터 적용되며 규모 등은 창립총회에서 정할 예정임. (창립총회는 2018년 1월 중 개최 예정)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운영기(010-7361-7273)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2017년 10월 통합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유료회원이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으로 통합운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5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방문신청** 부산문화회관 사무동(2층) 홍보마케팅팀

## 주의사항

관람권 예매취소는 공연 하루 전 17: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능)  
관람권 예매 후 가상계좌 입금은 기간 내에 미입금 시 예매 자동취소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능

##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 주차장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 제휴업체 할인 등(제휴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음료 등 제공)

## 정기회원 신규가입 기념 선물증정 이벤트

**대상** : 신규가입자  
**기간** : 2018년 2월 1일(목)~2월 28일(수) ※선착순 마감(각 100개 한정)  
**내용** : 보조배터리 겸용 손난로(VIP회원), 쿠션(스페셜회원, 예술단회원)





## VIP

- 연 회 비** 10만원
- 초 대 권**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 할인매수** 6매(공연당)
-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SPECIAL

- 연 회 비** 5만원
- 초 대 권**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 할인매수** 4매(공연당)
-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MEMBER

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 | 극단

- 연 회 비** 3만원
- 초 대 권**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 할인매수** 2매(공연당)
-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및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4~5 FAX. 051)607-607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제외)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III  
The Richard Strauss Cycle III - Complete Tone Poem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7회 정기연주회

# 천재의 고뇌와 모방

2018. 2. 8 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피아노 박종화

## Program

- 차이코프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P.I.Tchaikovsky | Piano Concerto No.1 in B flat minor, Op.23
- 모차르트 | 「마술피리」 서곡  
W.A.Mozart | Overture to "Die Zauberflöte", K.620
- 슈트라우스 | 「그림자 없는 여인」, 교향적 환상곡  
R.Strauss | "Die Frau ohne Schatten", Symphonic Fantasy, o.Op.146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5(정기회원)

예매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할인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 서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 (2회 운행)

조운범과 함께 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3

해설  
조운범



# 오페라 이야기 I-III

am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이종진

## 3.28

Opera Highlight I

세빌리아의 이발사 / 피가로의 결혼



지휘  
이기균

## 5.25

Opera Highlight III

삼손과 데릴라 / 로미오와 줄리엣



지휘  
김봉미

Opera Highlight II  
루치아 / 사랑의 묘약

## 4.25



# 분한하게 즐기자! 근무원 워터파크



핫잼~

꿀잼~!



실내 온도 30°C  
스파 온도 40°C  
물 온도 30~35°C



택시비 지원



어린이 케어 서비스

 **Blue One**  
WATER PARK

[www.blueone.com](http://www.blueone.com)



# 최고의 크리에이티브와 전략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효민디앤피**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가장 완벽한 서비스와 디자인 컨설팅,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소식지

PPT 디자인

일러스트

출판

보고서

카드로그

HOME PAGE [www.hyomindnp.co.kr](http://www.hyomindnp.co.kr)

T 051-807-5100 F 051-807-0846





Extreme Dance Comedy

# BREAK OUT!

극한그림 이시림 K-DANCE 코미디 퍼포먼스

2018.3.30(금) - 4.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시간 | 평일 7시 30분 / 토·일요일 2시, 6시

주최 | 부산문화회관

티켓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및 예매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www.ticketpark.com

# 당신의 스마트 폰

잘 보이시나요?

내가 벌써 노안인가?

누구나 느끼면서도 당혹해 하는 노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CUSTOM-Q  
노안교정술

스마일  
노안교정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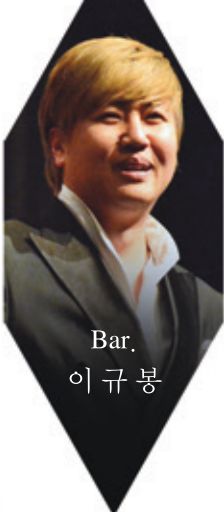
노안과 백내장을 한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 누네빛안과

롯데호텔 14F | 051.810.5678 | [www.nunevit.com](http://www.nunevi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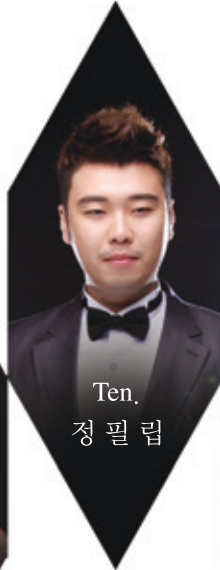
Bar.  
이규봉



Bar.  
조병익



Bass.  
김신호



Ten.  
정필립



Sop.  
임수연



Sop.  
김리라



Sop.  
정한나



Ten.  
이명현



Ten.  
이준범



지휘  
정병휘



부산시립교향악단

# 유럽신인 오페라 갈라 콘서트

2018.  
2.24.(토)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THE BUSANILBO

후원



티켓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및 예매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